문법 개념서의 기준

개념있는 국어문법

정답과 해설

Ⅰ. 문장

01 | 문장의 구성

1 문장의 구성 요소

개념 확인 문제 본문 23쪽

1 ②

2 (1) • 주어부: 그 꽃은 / • 서술부: 매우 붉다 / • 어절: 그, 꽃은, 매우, 붉다 / • 구: 그 꽃은, 매우 붉다 / • 절: 없음

(2) • 주어부: 영희는 / • 서술부: 중학교 선생님이 되었다 / • 어절: 영희는, 중학교, 선생님이, 되었다 / • 구: 중학교 선생님이 / • 절: 없음

(3) • 주어부: 철수는 / • 서술부: 어머니가 집에 오시기를 기다렸다 / • 어절: 철수는, 어머니가, 집에, 오시기를, 기다렸다 / • 구: 집에 오시기를 / • 절: 어머니가 집에 오시기를

1 〈보기 1〉은 꽃이 '아름답다', '하늘이 푸르다'는 상태를 나타내는 문장이므로, '무엇이 어떠하다.' 유형의 문장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은 '좋아하다'라는 동사를 서술어로 하는 문장이므로 '무엇이 무엇을 어찌한다.'의 문장이다. '좋아하다'와 의미가 비슷한 형용사 '좋다'와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의 서술어로 쓰인 '크다'는 동사와 형용사로 모두 사용되는 용언이지만 ㉢은 동사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무엇이 어찌한다.'의 유형에 속한다.

㉤은 명사에 서술격 조사가 결합된 '무엇이 무엇이다.' 유형의 문장이다.

2 (1) 어절은 띄어쓰기 단위와 일치한다. 구는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 한 덩이로 기능하는 것이므로 '그 꽃이'와 '매우 붉다'가 구이다. 절은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 하나의 문법 단위로 기능하지만 절을 이루는 요소들이 주어, 서술어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구와 구별된다. 그러므로 이 문장에서 절로 쓰인 요소는 없다.

(2) '중학교 선생님이'는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 한 덩이로 기능하는 구이며, '중학교'와 '선생님'이 주어와 서술어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절로 볼 수 없다.

(3) '어머니가 집에 오시기를'은 주어인 '어머니가'와 서술어인 '집에 오시-'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가지면서 문장에서 하나의 성분으로 쓰이고 있으므로 절로 볼 수 있다. '어머니가 집에 오시기를'이라는 절 안에 구인 '집에 오시기를'이 들어가 있다.

2 문장의 성분

개념 확인 문제 본문 32쪽

1 (1) 부사어 (2) 목적어 (3) 독립어 (4) 보어 (5) 서술어

2 (1) 주어 (2) 목적어 (3) 주어 (4) 주어 (5) 서술어 (6) 보어

3 (1) 주어 / 한 자리 서술어

(2) 주어, 보어 / 두 자리 서술어

(3) 주어, 부사어 / 두 자리 서술어

(4) 주어, 목적어 / 두 자리 서술어

(5) 주어, 부사어, 목적어 / 세 자리 서술어

2 (1) '밥이'는 한 자리 서술어 '되다'의 주어로 볼 수 있다. '밥이 죽이 되었다'는 두 자리 서술어 '되다' 구문이므로 이때의 '밥이'는 주어, '죽이'는 보어가 된다.

(2) '영희를'은 목적격 조사 '을/를'을 취하고 있으므로 목적어로 볼 수 있다.

(3) 주격 조사는 생략되었지만 서술어인 '가셨니'의 동작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버지'이므로 주어이다.

(4) 문장의 서술어가 되는 형용사 '크다'의 주어는 '손이'이다. 즉 '크다'는 어머니가 아니라 손을 풀이하는 서술이다.

(5) '무엇이 무엇이다'에 해당하는 구문이며, '그림의 떡이다'는 '무엇이다'에 해당되므로 서술어이다.

(6) '되다', '아니다'가 서술어인 문장에서 주어 이외에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이 보어이므로 '그런 사람이'는 보어이다.

개념 확인 문제 본문 38쪽

1 (1) 부사어, 목적어, 부사어 (2) 부사어, 목적어 (3) 보어, 부사어
2 동그란: 관형어, 활짝: 부사어, 먼저: 부사어, 위로의: 관형어
3 (2) 글쎄, 나도 그건 장담할 수가 없어. (3) 에구, 왜 그리도 내 속을 몰라주니?, (4) 아가, 춘향아, 정신 차려라. 어미 왔다.

1 (1) 부사격 조사 '에, 으로'와의 결합으로 부사어가, 목적격 조사 '을/를'의 결합으로 목적어가 되었다.
(2) 부사격 조사 '에게'와의 결합으로 부사어가, 목적격 조사 '을/를'의 결합으로 목적어가 되었다.
(3) 서술어 '되다/아니다' 앞에 오는 주어 이외의 문장 성분을 보어라고 한다. 보어는 보격 조사 '이, 가'와 결합한다. 따라서 '얼음이'는 보어이고, '얼음으로'는 부사격 조사 '으로'가 결합한 부사어이다.

2 '동그란'은 체언 '마음'을 꾸며 주는 관형어이고, '활짝'은 용언인 '웃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이다. 또, '먼저'는 용언인 '주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이고, '위로의'는 체언인 '선물'을 꾸며 주는 관형어이다.

3 독립어는 문장의 다른 성분과도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는 문장 성분이다. (2)의 '글쎄', (3)의 '에구'는 감탄사 그대로 독립어가 되었으며, (4)의 '아가'는 호격 조사 없이 독립어가 되었으며, '춘향아'는 체언에 호격 조사가 붙어 이루어졌다.
오답 풀이 (1) '그러나'는 접속 부사어이다.
(5) '다행히'는 부사어이다.

3 문장의 짜임

개념 확인 문제 본문 48쪽

1 ③
2 (1) 할아버지는 발이 크시다. (서술절) (2) 사람은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한다. (부사절) (3) 나는 네가 합격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명사절) (4)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리는 아기를 달랬다. (관형사절) (5) 형은 나에게 새벽같이 고향을 떠나라고 말했다. (인용절)
3 ④

1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은 서술절 자체가 서술어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서술어가 두 개가 아니라 주어가 두 개 이상 나오는 문장이다.

2 (1) '발이 크시다.'는 서술절이 서술어의 기능을 하고 있고, '할아버지는'은 '발이 크시다.'의 주어이다.
(2) '분수에 맞게'는 부사형 어미 '-게'가 붙어 이루어진 부사절이다. '살아야 한다.'는 서술어가 두 개이지만, '하다'는 보조 용언이므로 이는 하나의 서술어로 보아야 한다.
(3) '바라다'는 '-기' 명사절을 요구하는 서술어이다. 그러므로 '네가 합격하기'는 명사절이다.
(4) '울음'은 명사로 파생된 것이므로 명사절이 아니다. '아기가 울음을 터트렸다.'가 관형사형 어미 '-는'에 의해 '어머니가 아기를 달랬다.'라는 문장에 안겨 있다.
(5) '새벽같이'의 '같이'는 부사가 아니라 조사이다. 그러므로 '새벽같이'는 부사절로 볼 수 없다. '새벽같이 고향을 떠나라고'는 동사 '말하다'의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간접 인용절이다.

3 '슬픈 울음'에서 '울음'은 관형어 '슬픈'의 수식을 받는 명사이다.
오답 풀이 ①, ⑤ '(누군가가) 독서를 하-'와 '한국 음식은 요리하-'에 명사형 어미 '-기'가 붙어서 명사절을 만든다.
②, ③ 각각 '그가 정당했-'과 '그가 우리를 위해 노력했-'에 명사형 어미 '-음'이 붙어서 명사절을 만든다.

개념 확인 문제 본문 52쪽

1 대등하게 이어진문장: ㉣, ㉤ /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 ㉠, ㉡, ㉢
2 ④
3 홑문장은 ㉢, 이어진문장은 ㉤, 안은문장은 ㉠, ㉡, ㉣이다. ㉤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세 번 이루어진 이어진문장이다. ㉠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은 세 번, ㉣은 세 번 이루어진 안은문장이다.

2 ㉠, ㉢은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이고 ㉡, ㉣, ㉤은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3 ㉠은 '키가 아주 크다.'라는 서술절을 안고 있는 겹문장이다.
㉡은 '그가 돈이 많다.'는 '돈이 많다.'를 서술절로 가지는 겹문장에 명사형 어미 '-음'이 붙어 명사절을 이루고 있는 겹문장이다.
㉢은 주어, 부사어, 서술어 구성의 홑문장이다.
㉣은 '네가 일을 하다.'와 '네가 하는 일이 모두 잘되다.'라는 두 문장이 '(내가) 기원할게.'라는 더 큰 문장(안은문장) 속에 안겨 있다. '네가 일을 하다.'에 관형사형 어미 '-는'이 결합하여 관형절을, '네가 하는 일이 모두 잘되다.'에 명사형 어미 '-기'가 결합하여 명사절을 이루고 있다.
㉤은 '아내는 한숨을 내쉬다.'와 '아내는 팔을 베다.', '아내는 눈을 감았다.'라는 3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이다.

실전 문제

본문 53쪽

1 ④ **2** ④ **3** ③ **4** ⑤ **5** ③ **6** ⑤ **7** ③ **8** ④
9 ① **10** ③

1 〈보기〉의 '결혼하다'는 두 자리 서술어로, '1이 2와 결혼하다'와 같이 주어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④의 '향하다'는 두 자리 서술어로, 1이 2로 향하다'와 같이 주어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따라서 〈보기〉의 밑줄 친 서술어 '결혼하다'가 요구하는 필수 성분의 개수와 종류가 같은 것은 ④이다.
오답 풀이 ①의 '주다', ②의 '삼다', ⑤의 '넣다'는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③의 '걷다'는 주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2 ㉣의 '저 두 새 집'과 같이 관형어(사)가 겹쳐 나올 때, 앞의 관형어가 뒤의 관형어를 꾸미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그러나 '새'는 '집'을 수식하고 '두'는 '새 집'을 수식하며, '저'는 '두 새 집'을 수식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명사구를 수식한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관형어는 부속 성분이므로 ㉡의 '파란'을 생략해도 문법적인 문장이다. 그러나 ㉠ 뒤에 '분'과 같은 의존 명사가 올 경우에는 관형어를 생략할 수 없다. '저기 분이 누구냐?'와 같이 비문이 된다.
② ㉢은 '시골 풍경'이라는 체언이 연속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시골의 풍경'에서 관형격 조사 '의'가 생략이 된 경우이다.
③ 관형어가 겹쳐 나올 때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다. '지시 관형어-수 관형어-성상 관형어' 순이다. ㉣ 역시 '저(지시)-두(수)-새(성상)' 순이다.
⑤ ㉤은 '저 사람이 집을 관리하다.'라는 문장이 더 큰 문장(안은문장) 속의 절이 되어 주어 '집'을 꾸며 주고 있다. 이때 전체 문장과 공통된 성분인 '집'은 생략된다.

3 ③은 문장에 "체언+'이다'의 어간+관형사형 어미" 형태인 '독립운동가인'과 체언(대명사)인 '우리', '형용사+관형사형 어미' 형태인 '큰'을 관형어로 추가하여, 조건 ㉠, ㉣, ㉤을 모두 만족하도록 했다.
오답 풀이 ① ㉡ 관형사인 '저'와 '두', ㉤ '동사+관형사형 어미' 형태인 '낡은'을 관형어로 추가해 수정했다. 따라서 조건 ㉠을 만족하지 못했다.
② ㉠ 체언(명사)인 '어제', ㉤ '형용사+관형사형 어미' 형태인 '깊은'을 관형어로, '체언(명사)+부사격 조사' 형태인 '오후에'를 부사어로 추가해 수정했다. 따라서 조건 ㉢을 만족하지 못했다.
④ ㉡ 관형사인 '그', ㉠ 체언(명사)인 '속담', ㉢ '체언(명사)인+관형격 조사' 형태인 '속의'를 관형어로 추가해 수정했다. 조건 ㉠, ㉡, ㉢를 만족했고 조건 ㉤과는 관계가 없다.
⑤ ㉤ '형용사+관형사형 어미' 형태인 '슬픈', ㉤ '동사+관형사형 어미' 형태인 '간직한', ㉢ '체언(명사)+관형격 조사' 형태인 '불국사의'를 관형어로 추가해 수정했다. 조건 ㉣과는 관계가 없다. '사연을'은 '체언(명사)+목적격 조사' 형태의 목적어이다.

4 '나는 상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는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앞 절과 뒤 절의 자리를 바꿀 경우 의미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다. '나는 상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에서 배탈이 난 시점은 상한 음식을 먹고 난 이후이지만, '나는 배탈이 나고 상한 음식을 먹었다.'에서 배탈이 난 시점은 상한 음식을 먹기 전이므

로 두 문장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상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를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으로 볼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배탈이 [나는 상한 음식을 먹고] 났다'와 같이 앞 절을 뒤 절 속으로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들은 '문제 탐구' 부분에서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 보이고 있는 문법적 특성과 일치하므로 ㉤에는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한다.

오답 풀이 ①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은 앞 절과 뒤 절의 관계가 독립적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비가 내렸다'는 내용이 앞에 오든, '겨울에는 눈이 내렸다'는 내용이 앞에 오든 전체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에는 '앞 절과 뒤 절의 자리를 바꾸어도 의미의 변화가 없다.'는 말이 들어가야 한다.

② '운동을 하고 승우는 몸을 씻었다.'에서 승우가 몸을 씻은 행위는 운동을 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되지만, '승우는 몸을 씻고 운동을 했다.'에서 승우가 몸을 씻은 행위는 운동을 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되므로 ㉡에는 '앞 절과 뒤 절의 자리를 바꾸면 의미의 변화가 있다.'는 말이 들어가야 한다.

③ ㉢의 사례에서는 앞 절을 뒤 절 속으로 이동시켜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해 보았을 때 비문이 되는 것으로 보아, ㉢에는 '앞 절을 뒤 절 속으로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없다.'는 말이 들어가야 한다.

④ ㉣의 사례에서는 앞 절을 뒤 절 속으로 이동시켜 보고 있는데, '운동을 하고 승우는 몸을 씻었다.'나 '승우는 몸을 [운동을 하고] 씻었다.'나 승우가 몸을 씻은 행위는 운동을 한 후에 이루어지므로 앞 절을 뒤 절 속으로 이동시켜도 의미의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에는 '앞 절을 뒤 절 속으로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다.'는 말이 들어가야 한다. 종속적으로 이어진문장의 경우 앞 절과 뒤 절이 의미상 독립적이지 못하고 원인, 조건 등 의존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앞 절을 뒤 절 속으로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이다.

5 ⓐ는 홑문장, ⓑ는 안은문장, ⓒ는 이어진문장이다. ⓒ에 해당하는 것은 ㉮와 ㉲이다.

오답 풀이 ㉯ '윤기는 생겼다.'라는 안은문장이 '(윤기는) 건강하게'라는 부사절을 부사어로 안고 있다.

㉰ '나는 선배랑 떡볶이도 먹었다.'와 '나는 선배랑 커피도 마셨다.'가 연결 어미 '-고'에 의해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이다.

㉱ '승기는 전화를 끊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안은문장이 '이유도 없이'라는 부사절을 부사어로 안고 있다.

㉳ '설탕은 물에 잘 녹는다.'와 '기름은 물에 잘 녹지 않는다.'가 연결 어미 '-지만'에 의해 대등하게 이어진문장이다.

6 ㉤의 밑줄 친 명사절 '학위를 따기 위함'은 서술어 '아니다' 앞에서 보격 조사 '이'와 결합하여 문장에서 보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방학이 되다.'의 서술어 어간 '되-'에 명사형 어미 '-기'가 붙어서 만들어진 명사절 '방학이 되기'는 목적격 조사 '을'이 보조사 '만' 뒤에서 생략된 채 서술어 '기다렸다'의 대상인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② '네가 바빠지다.'의 서술어 어간 '바빠지-'에 명사형 어미 '-기'가 붙어서 만들어진 명사절 '네가 바빠지기'는 뒤에 오는 체언(명사) '전'을 꾸며 주는 관형어 역할을 하고 있다.

③ '네 식구가 살다.'의 서술어 어간 '살-'에 명사형 어미 '-기'가 붙어서 만들어진 명사절 '네 식구가 살기'에 부사격 조사 '에'가 결합하여 서술어 '적당하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다.

④ '꿈을 이루기 위하다.'의 서술어 어간 '위하-'에 명사형 어미 '-ㅁ'이 붙어서 만들어진 명사절 '꿈을 이루기 위함'은 서술격 조사 '이다'와 결합하여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다.

7 ㉠에는 '(세아는) 화장실에 가기가'라는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고, ㉢에는 '(선녀가) 날개옷을 입으라고'라는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오답 풀이 ① ㉠에는 '(세아는) 화장실에 가기가'라는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고, ㉡에는 '내가 (책을) 보던'이라는 '목적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② ㉠에는 '(세아는) 화장실에 가기가'라는 주어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고, ㉡에는 '내가 (책을) 보던'이라는 관형어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④ ㉡에는 '내가 (책을) 보던'이라는 관형어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고, ㉣에는 '외환 위기가 (1997

년에) 일어난'이라는 관형어 기능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다.
⑤ ㉤에는 '(선녀가) 날개옷을 입으라고'라는 주어 '선녀가'가 생략된 안긴문장(인용절)이 있다. ㉣에는 '외환 위기가 (1997년에) 일어난'이라는 부사어 '1997년에'가 생략된 안긴문장(관용사절)이 있으나, '1997년에'는 생략이 불가능한 부사어가 아니다.

8 ④의 '만들다'는 '1이 2를 3으로 만들다'와 같이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며, 이때 부사어로 쓰인 '친구로'는 필수적 부사어이다. 따라서 ⓐ와 ⓒ가 모두 실현되었다.
오답 풀이 ①의 서술어 '만들다'는 '1이 2를 만들다'와 같이 주어와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며, 안긴문장 '(장난감이) 재미난'은 관형어로 기능한다. 따라서 ⓐ와 ⓑ가 모두 실현되지 못했다.
②의 서술어 '알다'는 '1이 2를 알다'와 같이 주어와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며, 안긴문장 '연우가 멀리 떠날 것임을'은 목적어로 기능한다. 따라서 ⓐ는 실현되지 못했고, ⓑ는 실현되었다.
③의 서술어 '작정하다'는 '1이 2로 작정하다'와 같이 주어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고, 이때 부사어 '(너는) 나를 멀리하기로'는 필수적 부사어가 된다. 따라서 ⓐ는 실현되지 못했고, ⓒ는 실현되었다.
⑤의 안긴문장 '(그는) 현명하게도'는 부사어로 기능하며, ⑤의 서술어 '삼다'는 '1이 2를 3으로 삼다'와 같이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므로 이때 부사어로 쓰인 '(전화위복의) 계기로'는 필수적 부사어이다. 따라서 ⓑ는 실현되지 못했고, ⓒ는 실현되었다.

9 명사절은 '-(으)ㅁ, -기', 관형절은 '-(으)ㄴ, -는, -(으)ㄹ, -던', 부사절은 '-이, -게, -아서/-어서', 인용절은 '-고, 라고' 등의 절을 만들어 주는 표지가 있지만, 서술절은 다른 절과는 달리 절을 만들어 주는 표지가 따로 없다. ㉠ '키가 아주 크다.'는 서술절로, 여기에서의 '이/가'는 서술절의 주어에 격을 부여하는 주격 조사이기 때문에 서술절의 표지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그는'은 전체 문장의 주어이고, '키가'는 서술절 안의 주어이며, '크다'는 그 서술어이다.
오답 풀이 ② ㉡은 '마음이 따뜻하다.'는 문장이 관형사절 표지 '-ㄴ'과 결합하여 전체 문장에서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전체 문장과 공통된 요소인 '마음이'는 생략되었다.
③ ㉢의 '정이 많다.'는 문장은 명사형 전성 어미인 '-(으)ㅁ'과 결합하여 전체 문장에서 체언의 역할을 하고 있다.
④ ㉣은 '소리도 없다.'는 문장이 부사 파생 접미사 '-이'의 도움을 받아 전체 문장 '그는 기부하고 있다.'에서 부사어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즉, 큰 문장의 서술부 '기부하고 있다.'를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⑤ ㉤은 '사랑은 위대하다.'는 문장에 인용의 부사격 조사 '-고'가 결합하여 자신의 생각을 옮기는 인용절의 형식을 이루고 있다.

10 ③의 문장에 쓰인 '좋다'는 한 자리 서술어로, '1이 좋다'와 같이 주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좋다'가 '1이 2가 좋다'와 같이 두 자리 서술어로 쓰일 때는 '나는 문법이 좋다.'와 같이 심리 용언의 용법으로 쓰일 때이다.
오답 풀이 ①의 '싫다', ②의 '그립다', ④의 '간지럽다', ⑤의 '맞다'는 주어 이외의 또다른 필수 성분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이때 주어 이외의 필수 성분에는 조사 '이/가'가 결합하거나 생략되는 특성이 있다.

02 | 문법 요소의 기능과 의미

1 문법 요소

개념 확인 문제 본문 66쪽

1 ⑤ 2 ⑤ 3 ④

1 ⑤ '있다'의 경우 주체의 직접 높임일 때는 '계시다'를 쓰고, 간접 높임일 때는 '있으시다'를 쓴다.

2 ⑤ 객체 높임법의 쓰임이 아닌 주체 높임법의 쓰임이다.

오답 풀이 문장에서 객체는 목적어나 부사어를 말하는데 객체를 높이기 위해서는 특수한 동사가 사용된다. ①은 '데리고'가 '모시고'로, ②는 '보러'가 '뵈러'로 바뀌었다. ③은 '주었다'가 '드렸다'로, ④는 '물어'가 '여쭈어'로 바뀌었다.

3 '가는군'은 '가다'의 비격식체로서 해요체가 아니라 해체이다.

개념 확인 문제

본문 73쪽

1 ③, ⑧, ⑨ **2** ①

1 ③ '-게'는 평서문에서는 '하게체'의 어미이지만, 의문문에 쓰이는 '-게'는 '해체'로서 둘이 형태가 같지만 서로 다른 어미이다.

⑧ 이 문장에서의 '-게'는 종결 어미가 아니다. 이는 연결 어미로서 원래의 문장은 '엄마, 책 좀 사게 만 원만 주세요.'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명령문으로서 높임의 등급은 '해요체'이다. 문장의 종류와 상대 높임의 등급은 종결 어미에 의해 판단한다.

⑨ 동사 '말다'에 명령형 어미 '-(으)라'가 연결된 명령문이고, 높임의 등급은 '하라체'로서, 신문 기사의 표제나 구호 등에서 청자의 높임 등급을 뚜렷이 설정하지 않고 쓰일 수 있는 표현이다. '말다'에 '-(아/어)라'가 연결된 '해라체' 명령형에는 맞춤법 규정(18항-1)에 의하여 '마라'가 쓰이며, '-아/어'가 연결된 '해체'에는 '마'가 쓰인다.

2 ① 명령문의 주어는 듣는 이가 되지만, 청유문의 주어는 듣는 이와 말하는 이가 된다.

오답 풀이 ③ 동사 중에도 의미에 따라 명령, 청유가 불가능한 말도 있다. '결리다, 쩔쩔매다, 쪼들리다, 쑤시다' 등과 같은 동사는 명령형이나 청유형으로 쓰이지 않는다.

개념 확인 문제

본문 80쪽

1 (1) – ㉠ (2) – ㉢ (3) – ㉡ (4) – ㉣
2 (1) – ㉢ (2) – ㉤ (3) – ㉡ (4) – ㉠ (5) – ㉣
3 ③

3 ③ '-고 있다'와 '-는 중이다'는 모두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는 중이다'는 동작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약한 '알다, 모르다'와 같은 말에는 쓰이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어 있다'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변화가 끝난 상태가 지속된다는 의미를 가지며, 이 경우에는 '-었-'으로 바꿀 수 있다.

② '-아(어) 있다'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변화가 지속됨을 나타내는 완료의 의미를 가진다.

④ 보조적 연결 어미 '-어'와 '가다'가 합쳐져 동작의 진행을 표시하는 진행의 의미가 되었다.

⑤ 보조적 연결 어미 '-어'와 '버리다'가 합쳐져 행동이 이미 끝났음을 표시하는 완료의 의미가 되었다.

개념 확인 문제

본문 85쪽

1 ⑤ **2** ② **3** ③

1 능동주가 유정 명사일 때는 조사 '에게'를 쓰고 무정 명사일 때는 조사 '에'를 쓴다.

2 ②의 '환해졌다'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경우로 피동 표현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타동사 어근 '잡-'에 피동 접미사 '-히-'가 붙어 파생적 피동문이 되었으므로 '토끼가 포수에게 잡혔다.'는 피동 표현이다.

③ 용언 어간 '놓-'에 피동 접미사 '-이-'가 붙어 파생적 피동문이 되었으므로 '물건이 제자리에 잘 놓였다.'는 피동 표현이다.

④ 타동성 의미 속성을 갖는 체언에 접미사 '-되-'가 붙어 파생적 피동문이 되었으므로 '천막이 임시 숙소로 사용되었다.'는 피동 표현이다.

⑤ 용언 어간 '잃-'에 '-게 되다'가 붙어 통사적 피동문이 되었으므로 '그 사람은 수해로 집을 잃게 되었다.'는 피동 표현이다.

3 ③의 피동문은 '쓰레기가 인부들에 의해 땅에 묻히었다.'로 능동문과 피동문이 대응 관계를 이룬다.

오답 풀이 ① 못이 영수의 옷을 걸었다.(×)
② ○○가 날씨를 풀었다.(×)
④ 부모님의 칭찬이 영수에게 들렸다.(×)
⑤ 상대 후보가 그 사람을 회장 선거에서 밀었다.(×)

개념 확인 문제 본문 89쪽

1 ④
2 (1) ㉠은 주어의 직접 행위와 간접 행위를 나타내고, ㉡은 주어의 간접 행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의미 차이가 있다.
(2) ㉠은 주어의 직접 행위와 간접 행위를 나타내고, ㉡은 주어의 간접 행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의미 차이가 있다.
3 (1) ㉠은 '빨리'가 수식하는 범위가 어머니의 행위이며 ㉡은 '빨리'가 수식하는 범위가 아이의 먹는 행위이다.
(2) ㉠의 파생적 사동 표현에는 피사동주 '아이'에 조사 '가'가 쓰일 수 없고, ㉡의 통사적 사동 표현에는 피사동주 '아이'에 조사 '가'가 쓰일 수 있다.
4 • '시키다' 사동사: 순희에게 시켰다.
• 접미사 '–시키–': 어머니는 아들을 공부시켰다.

1 파생적 사동문은 주어의 직접적 행위와 간접적 행위를 동시에 나타낼 때도 있다.

개념 확인 문제 본문 94쪽

1 ⑤ **2** ⑤ **3** ②, ⑤

1 '안' 부정문은 '안' 다음에 형용사와 동사가 모두 올 수 있다. 반면에 '못' 부정문은 일반적으로 '못' 다음에 동사만 올 수 있다.

2 '말다' 부정문은 청유형과 명령형의 형태로 쓰이기 때문에 서술어가 형용사인 문장에서는 쓰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춥지만 마라."와 같은 경우는 명령의 뜻이 아니라 기원의 뜻으로 쓰인다.

3 ①과 ③은 부정 표현이 아니고 확인 의문문이다. ②는 이중 부정문이다.

개념 확인 문제 본문 97쪽

1 ㉠ 하고, ㉡ 고, ㉢ 라고
2 (1) 밑줄 친 부분 – "빨리 와." / 영희가 빨리 오라고 명령하였다. (2) 밑줄 친 부분 – "날씨가 참 좋구나!" / 철수가 날씨가 참 좋다고 외쳤다. (3) 밑줄 친 부분 – "누가 당번이지?" / 선생님께서 누가 당번이냐고 물어보셨다. (4) 밑줄 친 부분 – "제가 범인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5) 밑줄 친 부분 – "그래도 지구는 돈다."/ 갈릴레이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중얼거렸다. (6) 밑줄 친 부분 – "훌륭한 의사가 돼라." / 은사님께서 훌륭한 의사가 되라고 당부하셨다. (7) 밑줄 친 부분 – "일등을 하면 스마트폰을 사 주마." / 아버지께서 일등을 하면 스마트폰을 사 주겠다고 하셨다.
3 직접 인용의 지시 표현 대명사 '너'는 '내게'로, 시간 표현 '오늘'은 '어제'로 바뀌었다. 종결 어미 '–아/–어'는 '–(으)라'로 바뀌었고 인용격 조사 '–고'가 붙었다.

1 직접 인용은 '라고', '하고'가 붙은 꼴이 쓰이고 간접 인용은 '고'가 붙은 꼴이 쓰인다. ㉠과 같이 의성어를 인용할 때는 '하고'가 쓰이고, ㉡과 같이 다른 사람의 말을 옮겨서 쓸 경우 말하는 이의 입장에서 재해석해 표현할 때는 인용격 조사 '고'가 쓰이며, ㉢과 같이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옮겨서 쓸 때는 인용격 조사 '라고'가 쓰인다.

2 문장의 의미

개념 확인 문제 본문 101쪽

1 ①
2 (1) '미역국'이 음식으로 이해되며, 합성성의 원리에 의해 어제도 미역국을 먹었으니 오늘은 미역국을 먹지 말자는 의미를 가진다. (2) 대표적으로 시험에 떨어지지 말자는 의미로 이해되는 상황이라면 합성성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3 ㉠ 곡식으로 가득해졌다. (또는 창고가 곡식으로 가득하다.) ㉡ 철수에게 꿈을 샀다.

1 문장 구성 요소의 의미는 문법적 구조에 의해 순차적으로 합성됨으로써 문장 전체의 의미가 된다.

실전 문제

본문 102쪽

1 ③ **2** ① **3** ⑤ **4** ① **5** ② **6** ② **7** ④ **8** ⑤
9 ④ **10** ② **11** ② **12** ②

1 〈보기〉에서 상대 높임은 대화의 상대인 듣는 이를 높인다고 하였다. ㉣에서 '선생님'은 대화의 상대이자 문장의 주체로, '께서', '-시-', '-습니다'를 사용하여 '선생님'을 높이고 있다. 이중 '께서'와 '-시-'는 문장의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는 데 사용하였고, '-습니다'는 대화의 상대인 '선생님'을 높이는 데 사용하였다.

오답 풀이 ① ㉠에서 '선생님'은 객체가 아니라 주체이다. 객체는 문장에서 목적어나 부사어로 나타난다.
② ㉡에서 '선생님'은 주체가 아니라 객체이다. 객체인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 '께'와 '드리다'를 사용하고 있다.
④ ㉤에서 '걱정'은 높임의 대상이 아니며, '-시-'는 주체인 '어머니'를 간접적으로 높이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⑤ ㉥에서 '-께'는 객체인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맞지만, '-요'는 상대인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다.

2 ㉠에는 객체가 없거나, 객체가 있더라도 높임의 대상이 아닌 문장이 들어가야 하며, ㉡에는 특수 어휘를 통해서가 아니라, 높임의 부사격 조사를 통해 객체 높임이 실현된 문장이 들어가야 한다. ㉢에는 특수 어휘를 통해 객체를 높인 문장이 들어가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①이다. ㉠ '그럼 안녕히 다녀오십시오.'는 주체와 상대를 높이는 표현이며, ㉡ '나는 할아버지께 야단을 맞았다.'는 부사격 조사 '께'를 사용하여 객체인 '할아버지'를 높인 표현이다. ㉢ '나는 학교에 할머니를 모시고 갔다.'는 특수 어휘인 '모시다(모시고)'를 사용하여 객체인 '할머니'를 높인 객체 높임 표현이다.

오답 풀이

	㉠	㉡	㉢
②	주체 높임('-께서', '-계시다') (○)	객체 높임('-께') (○)	객체 높임('-께') (×)
③	주체 높임('저분', '선생님', '-시-') (○)	주체 높임('-께서', '-시-'), 상대 높임('-십시오') (×)	상대 높임('-합니까?') (×)
④	객체 높임('-께', '드리다') (×)	주체 높임('-시-') (×)	주체높임('-시-'), 상대 높임('-요') (×)
⑤	주체 높임('-께서', '주무시다'), 상대 높임('-요') (○)	객체 높임('뵙다') (×)	객체 높임('-께', '여쭈다') (○)

3 선어말 어미 '-겠-'이 '추측'의 의미를 나타낸 경우를 찾는 문제로, ⑤ '영수가 작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겠다.'에 사용된 '-겠-'은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④ '-겠-'은 말하는 이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②, ③ '-겠-'은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4 ① '코스모스가 활짝 피었구나.'는 이야기를 하는 현재 시점까지 코스모스가 활짝 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으로, '-었-'은 〈보기〉의 2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답 풀이 ②, ③, ④ '-었-'이 〈보기〉의 1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⑤ '-았-'이 〈보기〉의 3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5 형용사의 어간에 결합된 관형사형 어미 '-(으)ㄴ'과 동사의 어간에 결합된 관형사형 어미 '-는'은 현재의 의미를 나타낸다. 따라서 ㉠ '작은'과 ㉢ '읽는'에 쓰인 관형사형 어미는 모두 현재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③ ㉡ '읽은'에 쓰인 관형사형 어미 '-(으)ㄴ'은 동사의 과거 관형사형을 표시한다.
④ ㉥ '읽던'에 쓰인 관형사형 어미 '-던'은 과거 관

형사형으로 동사와 형용사, 서술격 조사에 두루 사용할 수 있다.
⑤ ㉣ '읽을'에 쓰인 관형사형 어미 '-(으)ㄹ'은 동사의 미래 관형사형을 표시한다.

6 ② '과제를 다 못 해서 주말에 학교에 간다.'는 '-ㄴ-'이 쓰인 현재 시제 형태이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미래 시제를 표현하는 데에 쓰인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은 미래 시제의 '-겠-'이 과거의 사건을 추측하는 데도 쓰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계룡산에 벌써 단풍이 들었겠다.'의 ㉠ '들었겠다'는 과거 시제의 '-었-'과 결합되어 추측의 의미를 나타낸다.
③ 선어말 어미 '-았-/-었-'은 일반적으로 과거에 일어난 일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지만 '주말은 다 갔네.'의 ㉡ '갔네'와 같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이가 미리 확신하여 말할 경우에 사용되기도 한다.
④ '-었-'이 중복된 '-었었-'은 발화시 이전과 강하게 단절된 상황을 표현한다. '작년까지는 과제가 거의 없었는데…….'의 ㉣ '없었었는데'는 현재 과제가 많이 있음과 비교하여 과거와는 전혀 다른 단절된 상황을 드러내는 것이다.
⑤ 선어말 어미 '-겠-'은 단순한 미래 시제 이외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의미도 표시한다. '나라면 그 과제 벌써 했겠다.'의 ㉤ '했겠다'는 '추측, 추정, 의지'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다.

7 '내 욕망은 완전히 억눌려져 있었다.'에서 '억눌려져('억누르-+-리-+-어지(다)+-어')'는 '억누르다'에 피동 접사 '-리-'와 '-어지다'가 결합한 표현으로 이중 피동에 해당한다. 따라서 '억누르다'에 '-어지다'가 결합한 '억눌려져(억누르-+-어지(다)+-어)'나 피동 접사 '-리-'를 결합한 '억눌려(억누르-+-리-+-어)'로도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풀어졌다'는 '풀-+-어지(다)+-었-+-다'로 이루어진 것으로 동사 '풀다'의 어간 '풀-'에 '-어지다'가 결합한 피동 표현이다. 이중 피동이 아니다.
② '불려지자'는 '부르-+-리-+-어지(다)+-자'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동 접사 '-리-'와 '-어지다'가 결합한 이중 피동이다. 피동 접사 '-리-'와 결합한 '불리자' 또는 '-어지다'와 결합한 '불려지자'로 수정해야 한다.
③ '믿어지지'는 '믿-+-어지(다)+-지'로 이중 피동이 아니다. 피동 접사 '-기-'와 결합한 '믿기지'도 적절한 피동 표현이다.
⑤ '뜯겨진'은 '뜯-+-기-+-어지(다)+-ㄴ'으로 이루어진 표현으로 이중 피동 표현에 해당한다. 따라서 '-어지다'와 결합한 '뜯어진'이나 피동 접사 '-기-'와 결합한 '뜯긴'이 적절한 피동 표현이다.

8 ㉤은 큰 문장(안은문장)에 '철수가 재치가 있다'라는 문장이 부사절로 안겨 있는 문장이다. 안긴문장은 큰 문장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부정의 영역에 포함이 된다. 즉, '재치가 있게 생긴 사실'이 부정되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부정의 영역이 어디까지 미치느냐에 따라 문장의 의미 해석이 달라진다. ㉠ '철수는 젓가락으로 김밥을 먹지 않았다.'는 총 네 가지로 해석된다.
1. 젓가락으로 김밥을 먹은 사람은 철수가 아니었다.
2. 철수가 김밥을 먹은 것은 젓가락으로가 아니었다.
3. 철수가 젓가락으로 먹은 것은 김밥이 아니었다.
4. 철수가 젓가락으로 김밥에 한 행위는 먹는 것이 아니었다.
② 문장 부사어의 경우 부정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데, ㉡의 '다행히'도 문장 부사어로 부정되지 않고 있다.
③ 성분 부사어의 경우 부정의 영역에 포함되는데, ㉢의 '일찍'도 서술어를 수식해 주는 성분 부사어이기 때문에 부정의 영역에 포함된다.
④ ㉣은 이어진문장으로 앞 절은 부정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철수는 달렸다는 사실'은 부정되지 않고 있다.

9 〈보기〉에 의하면 능력 부정이나 의지 부정은 동작 동사에만 적용되며, 형용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형용사는 능력이나 의지 자체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상태 부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④ '기상청에서 올 여름은 별로 안 더울 거래.'에서 부정 부사 '안'은 형용사 '덥다'를 부정한 것으로 상태 부정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의 '건강하다'는 형용사이므로 '건강하

지 못하다'를 능력 부정으로 볼 수 없다. 이때는 사람의 기대에 못 미침을 아쉬워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②의 '크다'는 동사이지만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동작 동사가 아니다. 따라서 상태를 부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의 '속상하다'는 형용사이므로 상태를 부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의 '하다'는 동사이며, 문맥상 의지를 부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0 〈보기〉에 적절한 문장으로 ㉠은 감탄문, ㉡은 평서문, ㉢은 의문문, ㉣은 명령문, ㉤은 청유문의 예가 제시되어야 한다. ②는 감탄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예이다.

오답 풀이 ①은 감탄문, ③은 의문문, ④는 명령문, ⑤는 청유문이므로 적절한 예이다.

11 '가결되다'는 타동성 체언 '가결'에 접미사 '-되-'가 결합된 피동사이다.

오답 풀이 ① '업히다'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를 '업도록 하였다'는 의미를 가진 사동사이다.
③ '붉어지다'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낼 뿐이므로 피동문으로 보기 어렵다.
④ 주어 '바닷가의 쓰레기 더미'에 미치는 외부 작용으로 '파도'를 들 수 있으므로 피동문이다.
⑤ 주어 '우주의 비밀'이 밝혀지는 데 영향을 미친 외부의 작용으로 '과학자들'을 들 수 있으므로 피동문이다.

12 주동사 어근 '돋-'에 사동 접사 '-우-'가 결합한 사동문이다.

오답 풀이 ① 타동사 '보다'의 어근 '보-'에 피동 접사 '-이-'가 결합한 피동문이다.
③ 타동사 '놓다'의 어근 '놓-'에 피동 접사 '-이-'가 결합한 피동문이다.
④ '시키다'는 독립된 단어로 '접사'가 아니다.
⑤ 용언의 '-게' 활용형에 '하다'가 결합한 꼴이 되려면 '가져오게 하였다'가 되어야 한다.

II. 단어

01 품사

2 품사의 종류와 특성

개념 확인 문제 본문 122쪽

1 ② 2 ① 3 ①

1 ②는 가산 명사와 질량 명사를 구별하는 방법이다.

2 수사는 특이한 환경에서 관형사의 꾸밈을 받는 경우가 있다. 예 저 둘이 한편이야. 저 셋이 단짝이야.

3 ①의 '자기'는 '그 사람 자신'를 뜻하는 명사이다.

개념 확인 문제 본문 130쪽

1 ③ 2 ⑤

3 • 규칙 활용

종류	단어	양상
'으' 탈락	담그다	담그- + -아 → 담가
	치르다	치르- + -어 → 치러
	따르다	따르- + -아 → 따라
	들르다	들르- + -어 → 들러

• 불규칙 활용
- 어간이 바뀌는 경우

종류	단어	양상
'르' 불규칙	다르다	다르- + -아 → 달라
	고르다	고르- + -아 → 골라
	모르다	모르- + -아 → 몰라
	마르다	마르- + -아 → 말라

– 어미가 바뀌는 경우

종류	단어	양상
'러' 불규칙	푸르다	푸르– + –어 → 푸르러
	이르다(至)	이르(至)– + –어 → 이르러

2 보조 용언은 그 자체만으로는 서술어가 되지 못하고, 본용언과 보조 용언 사이에는 '–서'나 다른 문장 성분이 개입될 수 없다. ⑤의 '먹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서술어가 되고, '집어서 먹었다'처럼 '–서'가 개입되므로 본용언이다.

개념 확인 문제

본문 137쪽

1 ㅅ **2** ㉠, ㉢ **3** ③

1 ㅅ의 '무거운'은 형용사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 이루어진 관형어로 품사는 형용사이다.

2 ㉠의 '저기'는 조사가 붙었으므로 대명사이다. ㉢의 '예쁘게'는 형용사의 어간에 부사형 어미가 붙어 이루어진 부사어로 품사는 형용사이다.

3 부사에는 일부 체언 앞에 와서 그 체언에 특별한 뜻을 더하여 주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 '내가 다니는 학교는 우리 집 바로 앞에 있다.'에서 '바로'는 부사로 뒤의 체언 '앞'을 수식한다.

오답 풀이 ① '새 신발'과 같이 관형사는 주로 체언을 꾸며 주고 '아주 쉽다'와 같이 부사는 주로 용언을 꾸며 준다.

② '새가 옷(x)'과 같이 관형사에는 조사가 붙지 않고, '일을 빨리도 한다.'와 같이 부사는 보조사가 붙는다.

④ 관형사는 체언 앞에 놓이지만,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문장 부사는 문장 안에서 자리 옮김이 자유롭다.

⑤ 관형사는 체언 이외의 품사를 꾸며 주지 않는다. '저 새 책'에서처럼 관형사가 나란히 놓여 있을 때는 앞의 관형사가 뒤의 관형사를 꾸며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저'는 관형사 '새'를 꾸며 주는 것이 아니고 명사구 '새 책'을 꾸며 주므로 관형사의 수식 대상은 명사(구)이다. 부사는 '바로 그 연필이다.'와 같이 관형사를 꾸며 줄 수 있다.

개념 확인 문제

본문 142쪽

1 • 격조사: ㉠, ㉢, ㉦ / • 보조사: ㉡, ㉣, ㉤, ㉥, ㅅ, ㉧ / • 접속 조사: ㉮

2 ⑤

3 다른 격조사들이 그 형태가 고정되어 있는 반면, 서술격 조사는 '이고, 이니, 이며'처럼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서술격 조사는 선어말 어미 '–었–'이나 '–시–'가 붙어 '이었다', '이시다'처럼 쓰이기도 하고,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다음에는 '이다'가 줄어 '–다'만 체언과 결합되기도 한다.

1 ㉠은 호격 조사, ㉢은 주체와 같은 자격을 나타내 주는 격조사, ㉦은 관형격 조사이다. ㉡은 선택, ㉣은 청자 존대, ㉤은 한계, ㉥은 첨가, ㅅ은 불만을 나타내는 보조사이고, ㉧은 앞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의문이나 그와 어긋나는 상황 따위를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은 접속 조사이다.

2 조사는 '떠들지를 마라.'처럼 용언 '떠들다(동사)'에도 붙을 수 있고, '빨리도 먹는구나.'처럼 부사 '빨리'에도 붙을 수 있다. 그러나 관형사에는 조사가 붙을 수 없다.

개념 확인 문제

본문 144쪽

1 ㉢, ㉥

2 ㅅ

3 일반적으로 감탄사는 관형사와 마찬가지로 조사가 붙을 수 없다. 그러나 '얘가, 얘는, 얘야'와 같은 표현이 실제 언어생활에서 쓰이고 있다. 또한 부사는 보조사가 붙을 수 있지만 격조사는 붙을 수 없다.

1 ㉢의 '아무리'와 ㉥의 '왜'는 뒤의 용언이나 문장을 꾸며 주는 부사이다.

2 감탄사에는 '아서라, 천만에' 등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의식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는 의지 감탄사가 있다.

오답 풀이 ㉢ 감탄사는 동일한 형태가 다른 품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감탄사 '거시기, 빌어먹을, 왜'는 각각 대명사, 관형사, 부사로 쓰이기도 한다.

실전 문제

본문 145쪽

1 ② 2 ③ 3 ⑤ 4 ② 5 ③ 6 ④ 7 ② 8 ⑤
9 ③

1 관형사는 주로 체언을 수식하고 부사는 주로 용언을 수식한다. 그런데 ㉡에서 관형사 '허튼'은 체언을 수식하고 있지만 부사 '겨우'는 용언을 수식하지 않고 체언 '10분'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관형사와 부사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로 적절하지 않다. 이외에 부사는 용언뿐만 아니라 부사, 관형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있다. ㉠ '매우 빨리 달린다.'(부사+부사+동사), '아주 새 책'(부사+관형사+명사)

오답 풀이 ① 명사, 대명사, 수사는 문법적인 차이점이 거의 없지만 수식 여부에 세부적인 차이가 있다. 명사는 모든 종류의 관형어가 두루 수식할 수 있지만 대명사는 명사보다 관형어의 꾸밈을 받는 데에 제약이 있다. 또한 수사는 수식할 수 있는 관형어가 거의 없다.

③ '있지'가 서술어로 쓰이지 않고 독립어로 쓰일 때는 감탄사이다.

④ '-ㄴ다/-는다, -자, -어라/-아라, -(으)러' 등의 어미와 결합하면 동사이고 결합할 수 없으면 형용사이다.

⑤ '와/과'는 접속 조사로 쓰일 때와 격조사로 쓰일 때가 있다. '다르다, 같다, 닮다, 싸우다, 비슷하다' 등의 서술어와 함께 쓰이면 주체와 공통의 자격을 나타내는 격조사이다.

2 부사와 관형사는 수식어의 기능을 한다는 점은 공통점이지만, 수식 받는 말의 성질이 다르다는 기능상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별개의 품사로 나눈 것이다.

오답 풀이 ① '-ㄴ다/-는다' '-자' '-어라/-아라' '-(으)려고' 등의 어미가 결합하는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문법적 성질이 다른 것으로 본다.

② 명사, 대명사, 수사는 수식 받는 말의 제약 정도가 다르다는 차이점 이외에는 문법적인 차이점이 별로 없다. 따라서 의미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의미란 단어의 개별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류 전체의 공통적인 의미를 뜻한다.

④ 조사를 제외한 다른 품사들은 모두 독립성이 있는 단어들이며 어근을 포함하고 있지만, 조사는 독립성이 없을 뿐더러 어근도 포함하지 않으므로 단어의 자격을 부여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학교 문법에서는 조사도 단어에 포함하고 있다.

⑤ 체언은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 부사어, 관형어 등의 여러 기능을 담당하지만, 수식언은 수식의 기능을 담당하고, 독립언은 '홀로'의 기능만을 담당하므로 한 가지 기능만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체언과 구별된다.

3 형용사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로 '-(으)ㄴ'이 쓰이며, 동사는 '-는'이 쓰인다. ㉤의 예문에 쓰인 '늙다'는 동사로만 쓰이는 단어이므로 '늙은'의 '-은'은 형용사의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가 아니라 동사의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이다.

오답 풀이 ㉠~㉣의 밑줄 친 단어들은 모두 형용사와 동사로 쓰이는 품사 통용어이다.(㉠ 더위가 작년보다 더하다. 병세가 점점 더한다.)

4 ②에서 ㉠의 '자기'는 '철수'를 가리키는 재귀 대명사이고, ㉡의 '자기'는 '그 사람 자신'을 가리키는 명사로 쓰였다.

오답 풀이 ① ㉠의 '제'는 앞에서 말한 '그'를 가리키는 재귀 대명사 '저'에 주격 조사 '가'가 결합된 말이고, ㉡의 '제'는 1인칭 대명사 '저'에 주격 조사 '가'가 붙을 때의 형태이다.

③ ㉠의 '저'는 '영희'를 가리키는 재귀 대명사이고, ㉡의 '저'는 말하는 이를 가리키는 1인칭 대명사이다.

④ ㉠의 '저희'는 '동생들'을 가리키는 재귀 대명사이고, ㉡의 '저희'는 '우리'의 낮춤말로 1인칭 대명사이다.

⑤ ㉠의 '당신'은 '자기'를 아주 높여 이르는 말로 '선생님'을 가리키는 재귀 대명사이고, ㉡은 듣는 이를 가리키는 2인칭 대명사이다.

5 〈보기〉의 탐구 과정에서 ㉠에 해당하는 결과는 '본용언+보조 용언'의 구조이다. 본용언과 달리 보조 용언은 의존적으로 쓰여 다른 서술어를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 ⓑ, ⓒ, ⓔ는 용언이 두 개 이상이고, 보조적 연결 어미로 이어져 있으며, 앞의 용언(본용언)을 생략했을 경우 문장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본

용언+보조 용언'의 구조에 해당된다. ⓑ의 '(-지) 아니하다(않다)'는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 동사이다. ⓒ의 '(-고) 싶다'는 희망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 형용사이다. ⓔ의 '(-어) 두다'는 유지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 동사이다.

오답 풀이 ⓐ, ⓓ는 두 개의 용언이고, 그 각각의 용언만으로도 문장이 성립된다. ⓐ는 '성적표를 받아 들고 천천히 폈다.'와 '성적표를 받아 들고 천천히 보았다.' 둘 다 성립된다. ⓓ는 '어머니는 성적표를 보시자마자 찢었다.'와 '어머니는 성적표를 보시자마자 휴지통에 버리셨다.' 둘 다 성립이 된다. 이때 '버렸다'가 확실히 본용언인 이유는 부사어 '휴지통에'가 쓰여 '버린' 행위로만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두 문장은 '본용언+본용언'의 구조라고 할 수 있다.

6 ⓐ의 '다른'은 '이것은 저것과 다르다.'는 문장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하여 관형절로 안겨 있는 것으로 서술성이 있다. 즉, '다르다'가 활용한 것으로 품사는 형용사이다. ⓑ의 '쓰기'는 서술성이 없는 파생 명사이고, ⓒ의 '이리'는 서술어 '넣어라'를 수식해 주는 부사이다. ⓔ은 '마음이 미안하다.'는 문장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하여 관형절로 안겨 있는 것으로 서술성이 있다. 즉, '미안하다'가 활용한 것으로 품사는 형용사이다. ㉠은 운동 종목 중 하나로 서술성이 없는 파생 명사이다. ㉥은 문장 전체를 수식해 주는 문장 부사이다.

오답 풀이 ㉡은 '당장 문제 되거나 해당되는 것 이외의.'의 의미인 '다른' 자체가 하나의 관형사이다. 따라서 서술성도 없다. ㉣은 '주자가 너무 빨리 달리다.'라는 문장에 명사형 전성 어미 '-기'가 결합하여 명사절로 안겨 있는 것이다. 즉, '달리기'는 '달리다'가 활용한 것으로 품사는 동사이며, 주체에 대한 행위의 서술성이 있다. 또한 부사어 '빨리'의 수식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도 서술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은 조사가 붙었으므로 대명사이다.

7 '장미 세 송이'에서 '세'는 수사가 아니라 수를 나타내는 관형사이다. 조사가 붙을 수 없다는 점에서 수사와 구별된다.

오답 풀이 ① 명사와의 구별이 적절한 설명이다.
③ 대명사와의 구별이 적절한 설명이다.
④ 형용사와의 구별이 적절한 설명이다.
⑤ 동사와의 구별이 적절한 설명이다.

8 (1) ⓐ~ⓒ에서 전성 어미가 포함된 것은 ⓒ이다. ⓐ는 관형사, ⓑ는 동사의 어간 '웃-'에 명사 파생 접미사 '-음'이 붙은 파생 명사이다. '행복한'이라는 관형어의 꾸밈을 받는 것으로 보아 서술의 기능이 없는 명사인 것을 알 수 있다. ⓒ는 '오래도록 그의 집에 불행이 없다.'는 문장에 부사형 전성 어미 '-도록'이 결합하여 '마을 사람들은 (그의) 행복을 마음속으로 빌어 주었다.'는 문장 속에서 문장 전체가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경우이다.

(2) '내가 태어난 1993년에는 경제가 어려웠다.'는 '내가 1993년에 태어났다.'는 문장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 '-ㄴ'이 결합하여 문장 전체가 관형어로 기능하고 있다. 안은문장인 '1993년에는 경제가 어려웠다.'에 관형어로 안긴 것인데 '1993년에'는 중복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생략된 것이다. 즉,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쓰인 문장이다.

오답 풀이 ① '내가 크게 웃다.'라는 문장에 명사형 전성 어미 '-음'이 결합하여 안은문장 속에 안겨서 문장 전체가 명사의 역할로서 주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② '비가 오다.'라는 문장에 명사형 전성 어미 '-기'가 결합하여 안은문장 속에 안겨서 문장 전체가 명사의 역할로서 목적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③ '차가 지나가다.'는 문장에 부사형 전성 어미 '-게'가 결합하여 '그는 길을 비켜 주었다.'는 안은문장 속에 안겨서 부사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①, ②와 달리 부사어로 기능하기 때문에 생략도 가능하다.
④ '허튼'은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결합한 것이 아니라 '허튼' 자체가 관형사이다.

9 ㄱ에서 '어떤'은 의문문에서 '사람이나 사물의 특성, 내용, 상태, 성격이 무엇인지 물을 때 쓰는 말.'을 의미하는 관형사이고, ㄴ의 '다른'은 '당장 문제 되거나 해당되는 것 이외의'의 의미로 고정된 형태로만 쓰이는 관형사이다. ㄷ의 '한다하는'은 '수준이나 실력 따위가 상당하다고 자처하거나 그렇게 인정받는.'을 의미하는 관형사로 서술하는 기능이 없다.

오답 풀이 '바른'을 '오른쪽을 이를 때 쓰는 말.'의 의미로 쓸 때는 서술성이 없는 관형사이지만, ㄹ의 '바

른'은 '말이나 행동 따위가 사회적 규범이나 사리에 어긋나지 않고 들어맞다.'를 의미하는 '바르다'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 '-ㄴ'이 결합한 것으로 '말이 바르다'처럼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을 하는 형용사이다.

02 | 단어의 형성

1 형태소와 단어

개념 확인 문제 본문 158쪽

1 ⑤ **2** ⑤

3 (1) 우리 / 나라 / 의 / 가을 / 하늘 / 은 / 매우 / 높- / -고 / 푸르- / -다

(2) • 자립 형태소: 우리, 나라, 가을, 하늘, 매우

• 의존 형태소: 의, 은, 높-, -고, 푸르-, -다

• 실질 형태소: 우리, 나라, 가을, 하늘, 매우, 높-, 푸르-

• 형식 형태소: 의, 은, -고, -다

1 조사는 단어로 분류하지만 주로 체언의 뒤에 붙어서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 준다. 단어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조사, 합성어, 첩어 등은 붙여 쓴다.

2 〈보기〉 '산, 에, 참-, 나리, 가, 피-, -었-, -다'로 총 8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오답 풀이 ① '산에 / 참나리가 / 피었다'로 3어절로 된 문장이다.

② '에, 참-, 가, -었-, -다'로 5개의 형식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다.

③ '산, 나리'가 자립 형태소이다.

④ '산, 에, 참나리, 가, 피었다'로 5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2 단어의 구성 요소

개념 확인 문제 본문 162쪽

1 ③ **2** ①

3 (1) 먹다 (2) 정답다, 먹이다 (3) 짓밟다 (4) 오가다, 뛰놀다

1 굴절 접사는 어근에 붙어 문법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굴절 접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새로운 단어가 아니다. 파생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말은 새로운 단어이므로 국어사전에 표제어로 올리지만, 굴절 접사가 붙은 말들은 대부분 새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형만을 표제어로 올린다.

2 접두사와 접미사는 대개 한 종류의 품사에 붙는 경우가 많지만 다른 종류의 품사에 붙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접두사 '헛-'은 명사 '수고'에 붙어 '헛수고'라는 파생어를 만들고, 동사 '디디다'에도 붙어 '헛디디다'라는 파생어를 만든다.

3 (1) '먹다'는 하나의 어근으로 된 단일어이다.

(2) '정답다', '먹이다'는 어근 '정-', '먹-'에 파생 접미사 '-답-', '-이-'가 붙은 파생어이다.

(3) '짓밟다'는 어근 '밟다'에 접두사 '짓-'이 붙은 파생어이다.

(4) '오가다', '뛰놀다'는 각각 '오다', '가다'와 '뛰다', '놀다'로 두 개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3 단어 형성법

개념 확인 문제 본문 169쪽

1 ②

2 (1) 본받다, 어깨동무, 귀먹다, 건널목, 눈물, 겉늙다, 빈집 (2) 검붉다, 뛰놀다, 굶주리다

3 ⑤

4 군소리

1 합성어는 'A'라는 단어의 어근과 'B'라는 단어의 어근이 합쳐져서 형성되는데, 그 의미는 원칙적으로 'A+B'가 아니라 새로운 의미 'C'로 변이된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손쉽다'라는 합성어의 의미는 단어 '손'과 '쉽다'의 의미의 총합이 아니라 '어떤 것을 다루거나 어떤 일을 하기가 퍽 쉽다.'는 제삼의 뜻으로 변이된 것이다. 반면에 구(句)는 두 단어가 모여 하나의 품사처럼 쓰이는 것이고 두 단어의 의미의

총합이 구(句)의 의미가 된다. 예를 들어, '가을 하늘'이라는 구는 '가을'과 '하늘'의 의미를 합한 것과 의미가 같다.

2 '본받다, 어깨동무, 귀먹다, 건널목, 눈물, 겉늙다, 빈집'은 모두 국어의 일반적인 문장 구조에서 확인되는 단어의 배열법에 따라 만들어진 통사적 합성어이다. '검붉다, 굶주리다, 뛰놀다'는 국어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에 따른다면 각각 '검고 붉다', '굶고 주리다', '뛰고 놀다'로, 연결 어미(-고)가 생략되어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3 ⑤의 '구두닦이'는 '구두+닦이'로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4 • 오른손: '오른쪽을 이를 때 쓰는 말.'인 '오른'은 관형사로, '오른+손'으로 된 합성어이다.
• 온누리: '온'은 '전부의. 또는 모두의.'를 뜻하는 관형사로, '온 누리'로 띄어 쓴다. 접두사 '온-'은 '꽉 찬', '완전한' 따위의 뜻을 더하는 말로 관형사 '온'과 구별된다.

실전 문제

본문 170쪽

1 ④ **2** ④ **3** ② **4** ④ **5** ③ **6** ① **7** ④ **8** ⑤ **9** ⑤

1 (ㄷ)에서 '그는 웃음이 많다.'에 쓰인 '웃음'은 어근 '웃-'에 파생 접미사 '-음'이 붙어 명사로 파생된 것이고, '우리는 그가 크게 웃음에 안도했다.'에 쓰인 '웃음'은 어간 '웃-'에 명사형 전성 어미 '-음'이 붙은 것이다. 이때 명사형 어미는 '웃다'에 붙은 것이 아니고, '그가 크게 웃다.'라는 문장 전체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오답 풀이 ① 파생 접사는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조어적 기능을 하고, 어미는 어간에 붙어 활용형을 만드는 문법적인 기능을 한다. 파생 접사가 붙어 형성된 파생어는 국어사전에 표제어로 올리지만, 어미가 붙은 활용형은 국어사전에 올리지 않고 기본형만 표제어로 올린다.

② 파생 접사 '-이'와 '-(으)ㅁ'이 어근의 품사를 결정하고 있다.

③ 어미 '-(으)ㄴ'은 여러 어간에 자유롭게 결합하지만, 파생 접사 '-이'는 결합되는 어근이 제약되고 있다.

⑤ '지혜롭고'에서 파생 접사 '-롭-'은 어미 '-고'의 앞에 오고, '치솟았다'에서 파생 접사 '치-'는 어근 '솟-'에 붙은 다음에 어미 '-았-', '-다'와 결합한다.

2 '휘감다'에 쓰인 접두사 '휘-'와 '휩싸이다'에 쓰인 접두사 '휩-'은 의미와 기능이 동일한 이형태이다. 이와 같은 예로는 '햇곡식, 햅쌀, 해콩'에 쓰인 접두사 '햇-, 햅-, 해-'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도 모두 이형태이다. 그러나 '샛노랗다'의 '샛-'과 '새색시'의 '새'는 이형태가 아니다. '샛-'의 이형태로는 '싯누렇다'에 쓰이는 '싯-'을 들 수 있으며, '새까맣다'의 '새-'와 '시꺼멓다'의 '시-'도 마찬가지로 서로 이형태이다. '새색시'의 '새'는 단어의 자격을 갖는 관형사이다.

오답 풀이 ① 접두사 '풋-', '막-', '휘-'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지 않는다.

② 접미사 '-이'와 '-(으)ㅁ'은 동사를 명사로 바꾸고, 접미사 '-스럽-'은 명사를 형용사로 바꾼다.

③ 어근은 어휘 형태소로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접두사와 접미사는 형식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문법 형태소로 분류한다. 그러나 접두사는 접미사에 비해 어휘적인 의미가 더 강하게 느껴진다.

⑤ 접두사 '덧-'과 '헛-'은 각각 명사와 동사에 모두 결합하지만 접미사 '-개'와 '-롭-'은 한 가지 품사에만 결합한다.

3 '첫 만남'의 '첫'은 '맨 처음의'의 뜻을 나타내는 관형사이고 '첫인상'의 '첫'도 단어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관형사이다. 그러나 '첫인상'의 경우 두 어근이 합해져 새로운 합성어를 형성한 것이다. 즉 '첫인상'의 '첫'은 접두사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한겨울'의 '한-'은 접두사이고, '한 30분쯤'의 '한'은 관형사이다.

③ '귀금속'의 '귀-'는 접두사이고, '귀 회사'의 '귀'는 관형사이다.

④ '휘몰아쳤다'의 '휘-'는 접두사이고, '휘 내쉬고'

의 '휘'는 부사이다.
⑤ '막말'의 '막-'은 접두사이고, '막 짓밟았다'의 '막'은 부사이다.

4 합성어 '작은형'은 '작은'과 '형' 사이에 다른 말이 끼어들어 갈 수 없으나, 구(句)로 쓰이는 '작은 형'은 '키가 작은 우리 형'과 같이 두 어근을 분리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합성어 '건너뛰다'는 행위의 순서와 합성어 어근의 배열 순서가 반대이지만 '뛰어 건너다'는 '뛰어서 건너다'의 뜻으로 쓰인 구(句)이며, 이때 두 행위는 순서대로 이루어진다.
② 관형사 '헌'은 뒤에 오는 체언과 띄어 쓰고 관형사와 체언이 구(句)를 이루지만, 모국어 화자들이 두 단어가 합해진 하나의 단어로 인식하면 합성어로 국어사전에 등재하고 있다. 따라서 '헌책'은 합성어이지만 관형사 뒤에 오는 다른 체언은 띄어 쓴다.
③ 합성어 '밤낮'은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늘'의 뜻으로 쓰인 부사이다. 즉 두 어근의 의미가 단순히 합해진 것이 아니라 제삼의 의미로 바뀐 합성어이다.
⑤ '논밭'은 '논과 밭'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합성어의 구성 요소인 어근의 배열 순서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으므로 '밭논'으로 바꾸어 쓸 수 없다.

5 '안되다'는 부정의 의미인 부사 '안'과 동사 '되다'가, '가로막다'는 '옆으로 길게'의 의미인 부사 '가로'와 동사 '막다'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오답 풀이 ㉠ '첫눈'은 관형사와 명사가 결합한 합성어, ㉡ '여닫다'는 어간 '열-'에 연결 어미 없이 어간 '닫-'이 직접 결합한 합성어이다. ㉣ '디딤돌'은 '디디다'의 명사형 '디딤'과 명사 '돌'이 결합한 합성어다. ㉤ '깎아지르다'는 어간 '깎-'과 '지르-'가 연결 어미 '-아'를 매개로 결합한 합성어다.

6 ㉠의 '접칼'은 어간 '접-'에 명사 '칼'이 결합한 비통사적 합성어이고, ㉡의 '퍼내다'는 어간 '푸-'에 용언의 연결형 '-어'가 결합하여 '-ㅜ'가 탈락한 '퍼-' 다음에 용언 '내다'가 결합한 통사적 합성어이다. ㉢은 자립성 없는 어근 '보슬'에 명사 '비'가 결합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오답 풀이 ② ㉡ '검붉다'는 어간 '검-'에 용언의 연결형 없이 어간 '붉-'이 결합한 비통사적 합성어이고 ㉢ '건널목'은 용언 '건너다'의 관형사형 '건널'에 명사 '목'이 결합한 통사적 합성어이다.
③ ㉠ '어린이'는 용언의 관형사형 '어린'에 의존 명사 '이'가 결합된 통사적 합성어이고 ㉡ '새하얗다'는 접두사 '새'에 어근 '하얗-'이 결합된 파생어이다.
④ ㉢ '새신랑'은 관형사 '새'에 명사 '신랑'이 결합한 통사적 합성어이다.
⑤ ㉠ '이슬비'는 명사+명사의 통사적 합성어이다. ㉢ '접칼'은 용언 어간에 명사가 결합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7 ㉤의 '제육볶음'의 직접 구성 요소는 '제육', '볶음'으로, '볶음'은 어간 '볶-'에 접사 '-음'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따라서 '제육볶음'은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인 합성어이다.

오답 풀이 ㉠ '놀이터'의 직접 구성 요소는 '놀이', '터'이다. '놀이'는 어간 '놀-'에 접사 '-이'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따라서 '놀이터'는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인 합성어이다.
㉡ '헛웃음'는 접사 '헛-'과 파생어 '웃음'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 '큰부리새'의 직접 구성 요소는 '큰부리'와 '새'이다. '큰부리'의 직접 구성 요소는 '큰(크-+-(으)ㄴ)'과 '부리'이다. 따라서 '큰부리새'는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합성어인 합성어이다.
㉣ '나들이옷'의 직접 구성 요소는 '나들이'와 '옷'이다. '나들이'는 어근 '나들-'과 접사 '-이'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따라서 '나들이옷'은 직접 구성 요소 중의 하나가 파생어인 합성어이다.

8 ㉠의 '집어먹다'는 합성어이므로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으나, ㉢의 '잊어 먹었다'의 '먹다'는 보조 용언이므로 '잊어먹다'는 국어사전에 올라와 있지 않고, '잊어 먹다'로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오답 풀이 ① 합성어는 제삼의 의미로 변이된 것이므로 올바른 설명이다.
② '집어'와 '먹었다' 두 용언이 모두 본용언으로 쓰인 경우이므로 각각의 용언이 주어와 호응한다.
③ ㉡의 '집어 먹었다'는 '집어(만) 먹었다, 집어(도) 먹었다'와 같이 두 용언 사이에 다른 말이 끼어들어 두 용언을 분리시킬 수 있다.

④ 보조 용언은 주어와 호응하지 못하므로 올바른 설명이다.

9 명사형 어미 '-(으)ㅁ'과 '-기'는 결합하는 용언 어간의 종류에 따라서 선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명사절을 안고 있는 안은문장의 서술어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오답 풀이 ① 단일어는 하나의 어근으로 형성된 단어이다. ㉠의 '웃음[1]'은 '어근+접미사'로 형성된 파생어이며, ㉡의 '웃음[2]'는 '어근+어미'의 결합이므로 단일어이다.

② ㉠의 '웃음[1]'은 파생 명사이고, ㉡의 '웃음[2]'는 동사의 명사형이다.

③ ㉢의 '보기[1]'은 파생 명사이고, ㉣의 '보기[2]'는 동사의 명사형이다.

④ '-(으)ㅁ'과 '-기'가 전성 어미로 쓰일 때는 용언의 어간과 더불어 한 단어를 이루고 있지만 그것이 붙어서 만든 절 전체에 문법적 기능을 미친다.

03 | 단어의 의미

1 단어 의미의 종류

개념 확인 문제 본문 181쪽

1 (1) 본질적, 확정적, 핵심적, 폐쇄적 (2) 개방적, 부수적, 주변적, 비확정적
2 ②
3 길이가 짧은 표현보다는 긴 표현 쪽이 더 친절하고 공손하며 예의 바르게 느껴진다.

2 ②의 '손이 크다'는 단순히 손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씀씀이가 후하고 크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을 관용어라 한다.

3 말하는 이의 심리적 상태에 따라 말의 길이가 달라질 수 있고, 그러한 요소가 반영되어 정서적 의미의 차이가 나타난다. 같은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지만 ㉠에서 ㉤으로 길이가 점점 길어지면서 정서적 의미가 달라지고, 더 친절하고 공손하며 예의 바른 표현이 된다.

2 단어의 의미 관계

개념 확인 문제 본문 188쪽

1 반의 관계를 이루려면 한 개의 의미 요소만 다르고 나머지 요소들은 공통적이어야 하는데, '아버지'와 '딸'은 '성별'과 '세대'라는 두 개의 의미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반의 관계가 될 수 없다.
2 (1) 살다 – 죽다, 아들 – 딸 (2) 높다 – 낮다, 어렵다 – 쉽다 (3) 스승 – 제자, 앞 – 뒤
3 (1) 참여 (2) 참가 (3) 참가 (4) 참여 (5) 참석 (6) 참석
4 ④

2 상보 반의어는 한쪽의 부정이 다른 쪽의 긍정이 되는 반의어로, '살다, 아들'의 부정은 곧 '죽다, 딸'이 된다. 등급 반의어는 두 단어 사이에 정도나 등급이 있어서 대립이 되는 반의어로 중간 단계가 있으므로 비교급, 최상급의 표현이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높다-낮다, 어렵다-쉽다'가 등급 반의어에 해당한다. 방향(상관) 반의어는 한쪽의 부정이 반드시 다른 쪽의 부정이 되지 않는 반의어로, 두 단어가 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의미상 대칭을 이루는 '스승-제자, 앞-뒤'가 방향(상관) 반의어에 해당한다.

3 '참가하다, 참석하다, 참여하다'가 문장 내에서 어울려 쓰이는 단어들을 가지고 구별해야 한다. 즉 ㉠의 '참가하다'는 단체, 경기, 행사 관련 단어와 함께 쓰이고, ㉡의 '참석하다'는 회의, 모임 관련 단어와 함께 쓰인다. 또 ㉢의 '참여하다'는 일, 활동 관련 단어와 함께 쓰이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4 '변별하다'와 '분간하다'는 유의 관계이다.

3 단어의 의미 변화

개념 확인 문제 본문 192쪽

1 (1) 코: 언어적 원인 (2) 선생: 사회적 원인 (3) 지갑: 역사적 원인 (4) 곰: 심리적 원인

2 (1) 의미 이동으로, '어린'은 '어리석은'의 뜻으로 쓰였으나 지금은 '어리다[幼]'의 뜻으로 의미가 바뀐 경우이다. (2) '놈'의 의미 변화 유형은 의미 축소로, '놈'은 '사람을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말'로 쓰였으나, 지금은 '사람을 낮추어 지칭하는 말'로 쓰인다. (3) 의미 이동으로, '어엿비'는 '불쌍하게'의 뜻으로 쓰였으나, 지금은 '예쁘게'의 뜻으로 의미가 바뀐 경우이다.

3 (1) 다리, 식구, 박사, 세수 (2) 짓, 얼굴, 미인, 보조개

1 '코'는 얼굴의 일부분에서 '콧물'의 의미를 갖게 된 것으로 언어적 원인에 의해 의미가 변한 것이다. '선생'은 원래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의 뜻을 지니고 있으나 오늘날에는 단순한 존대의 뜻으로 널리 쓰임으로써 의미가 변화하였다. '지갑'은 '종이로 만든 물건'에서 '종이 이외의 다양한 재질로 만들어진 물건'의 의미를 갖게 된 것으로 역사적 원인에 의해 의미가 변화한 것이다. '곰'은 본래의 동물 '곰'만을 의미하다가 '미련하다'라는 의미를 갖게 된 것으로 심리적 원인에 의해 의미가 변한 것이다.

3 '다리'는 '사람이나 동물의 다리'에서 '사물의 다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식구'는 '입을 가리키는 말'에서 '가족과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박사'는 '최고의 학위나 그것을 딴 사람'에서 '어떤 일에 정통하거나 숙달된 사람'으로, '세수'는 '손을 씻는 행동'에서 '손과 얼굴을 씻는 행동 모두'로 의미가 확대된 것이다. '짓'은 모양과 동작 모두 쓰이다 '동작'에만 쓰이는 것으로, '얼굴'은 '몸 전체'에서 '안면'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미인'은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쓰다가 '여자'에게만, '보조개'는 '볼 자체'에서 '볼의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으로 의미가 축소된 단어들이다.

실전 문제 본문 193쪽

1 ④ **2** ② **3** ③ **4** ③

1 '방금'과 '금방'은 둘 다 그리 멀지 않은 시간을 나타내지만, 그 쓰임이 다를 때가 있다. '방금'은 말하는 시간보다 조금 전을 가리키므로 주로 과거 시제와 쓰이는 경우가 많다. 반면, '금방'은 말하는 시간의 조금 전, 같은 때, 조금 후를 모두 가리킬 수 있어서 모든 시제에 두루 쓰인다.

오답 풀이 ① 주어의 위치에 '솟다'는 구체 명사(구체적 개념을 표현하는 말)가 오고 '오르다'는 유정 명사가 와야 한다.

② '어떤'과 '어느'의 쓰임을 올바르게 설명하였다.

③ '아마'와 '혹시'의 쓰임을 올바르게 설명하였다. 다만, '혹시'가 항상 의문문에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예 그가 혹시 올지도 몰라.)

⑤ '다투다'와 '싸우다'의 쓰임을 올바르게 설명하였다.

2 ② ㉠의 '열다'는 '사업이나 경영 따위의 운영을 시작하다.'는 의미이다. ㉡에는 '모임이나 회의 따위를 시작하다.'의 의미인 '열다'의 반의어로 '어떤 일이나 과정, 절차 따위가 끝나다.'는 의미인 '마치다'가 적절하다. ㉢에는 '(입을 목적어로 하여)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시작하다.'의 의미인 '열다'와 반의 관계에 있는 '다물다'가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의 '열다'는 '(마음)을 목적어로 하여) 자신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터놓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이다.'의 의미로 '폐업하다'와 반의 관계가 아니다.

③ ㉠의 '열다'는 '하루의 영업을 시작하다.'는 의미로 '폐업하다'와 반의 관계가 아니며, ㉢ '입을 열다'와 '덮다'도 반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④ ㉡의 '폐쇄하다'는 '문 따위를 닫아걸거나 막아 버리다.'의 의미로,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다.'를 의미하는 '열다'의 반의어가 아니다.

⑤ ㉢의 '밀폐하다'는 '샐 틈 없이 꼭 막거나 닫다.'의 의미로, 〈보기〉의 ㉢에 들어갈 반의어로 적절하지 않다.

3 ③ ㉠의 '다리'는 '신체의 부분'을 의미하는 단어이고, ㉡의 '다리'는 '둘 사이의 관계를 이어 주는 사람이나 사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건너다닐 수 있도록 만든 시설물'을 의미하는 말인 '다리'에서 의미가 확장된 단어이다. 즉 ③의 '다리'는 형태만 같을 뿐 서로 어원이 다른 동음이의어이다.

오답 풀이 ① ㉠에서는 '빛의 자극을 받아 물체를 볼 수 있는 감각 기관'이라는 기본 의미로, ㉡에서는 '사람들의 눈길'이라는 주변 의미로 사용되었다.
② ㉠에서는 '사람의 팔목 끝에 달린 부분'이라는 기본 의미로, ㉡에서는 '어떤 사람의 영향력이나 권한이 미치는 범위'라는 주변 의미로 사용되었다.
④ ㉠에서는 '음식 따위를 입을 통하여 배 속에 들여보내다.'라는 기본 의미로, ㉡에서는 '어떤 마음이나 감정을 품다.'라는 주변 의미로 사용되었다.
⑤ ㉠은 '생명을 지니고 있다.'라는 기본 의미로, ㉡은 '글이나 말, 또는 어떤 현상의 효력 따위가 현실과 관련되어 생동성이 있다.'라는 주변 의미로 사용되었다.

4 ⓐ 다리[脚]: '다리'는 예전에는 사람이나 짐승의 다리만을 가리켰으나 이것이 '책상다리'나 '지겟다리'까지 가리키게 된 것으로 의미가 확대되었다.
ⓑ 짐승(〈즘ᄉᆡᆼ): '즘ᄉᆡᆼ'은 유정물 전체를 가리키는 불교 용어였던 것이 그 후 '짐승'으로 형태가 바뀌고 의미도 축소되었다.
ⓒ 주책(〈주착): '주책'은 '주착(主着)'이 형태 변화한 것으로, '일정하게 자리 잡힌 주장이나 판단력'이란 뜻으로, 보통 '주책없다'로 많이 쓴다. '주책없다'는 '일정한 줏대가 없이 이랬다저랬다하여 몹시 실없다.'의 안 좋은 뜻으로 쓰이는데 '주책이다', 또는 '주책을 부리다', '주책을 떨다' 역시 '주책없다'와 비슷하게 안 좋은 뜻으로 쓰인다. 이는 '주책'이 원뜻에서 '무주착(無主着)'의 의미로 바뀌어 가는 것으로 의미 이동이 일어났다.
ⓓ 세수하다: '세수(洗手)하다'는 글자 그대로 애초에는 세수, 즉 손만 씻는 행위를 뜻하였으나 지금은 얼굴까지 씻는 행위로 쓰고 있으므로 의미 확대의 예이다.
ⓔ 계집: '계집'은 본래 여자를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말로, 비하하는 의미가 아니었으나 오늘날에는 '여자, 아내를 낮잡아 이르는 말.'로 한정하여 쓰고 있으므로 의미가 축소되었다.
ⓕ 예쁘다(〈어엿브다): '어엿브다'는 '불쌍하다'는 뜻이던 것이 오늘날의 '예쁘다'(외모, 마음씨가 곱다.)로 바뀌었다. 이는 의미가 이동된 것이다.

Ⅲ. 음운

01 | 음운과 음운 체계

1 음성과 음운

개념 확인 문제 본문 205쪽

1 ⑤ 2 ④ 3 ③

1 음운은 그것이 나타나는 환경에 따라 다른 소리로 실현된다. 이를 그 음운에 대한 변이음이라 한다.

2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를 '음운'이라고 한다. 음운은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 심리적이고 관념적인 소리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소리값으로 생각하고 있는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소리이다. 반면, '음성'은 사람의 입안에서 나와서, 사람의 생각이나 뜻을 주고받는 데 쓰이는 구체적인 소리를 말한다. 어떤 음성들이 한 언어 안에서 의미를 분화시킬 때 그것을 변별적이라고 하며, 그러한 기능을 변별적 기능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변별적 기능을 갖는 소리들은 음운의 자격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물'과 '불'은 'ㅁ'과 'ㅂ'에 의하여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말이 되므로 음운에 해당된다.
오답 풀이 ⑤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나머지 요소는 모두 같고, 오직 한 가지 요소에 의해서만 의미가 구별되는 경우를 '최소 대립'이라 하며, 최소 대립을 이루는 단어의 짝을 '최소 대립쌍'이라 한다. 따라서 '물'과 '불'은 최소 대립쌍이라 할 수 있다.

3 ㉢은 센입천장이 아닌 여린입천장에 해당한다.

2 국어의 음운 체계

개념 확인 문제 본문 209쪽

1 ㉠ ㅂ ㉡ ㅁ ㉢ ㄹ ㉣ ㅇ ㉤ ㅎ 2 ②

2 'ㅋ'은 거센소리로, 두 성대를 멀리 떨어뜨려서 목청을 통과하는 기류의 양을 많이 내어 소리를 내야 한다. 여린입천장 소리 중에서 목청의 긴장을 동반해서 내는 된소리에는 'ㄲ'이 있다. 'ㄱ'은 예사소리이다.

오답 풀이 ① 'ㄱ'과 'ㅋ'은 모두 여린입천장소리이다.

③ 'ㄱ'과 'ㅋ'은 파열음으로, 허파에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을 일단 막았다가 순간적으로 터뜨리면서 소리를 낸다.

④ 영어의 파열음에는 안울림소리([k, t, p])와 울림소리([g, d, b])의 대립이 있는 반면, 우리말의 파열음에는 울림소리가 없다. 우리말의 파열음 안울림소리는 예사소리와 된소리, 거센소리가 있다.

⑤ 영어에서는 국어와 같이 자음을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구별하지 않고 무성음과 유성음으로만 구별한다. 따라서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인들은 두 개의 자음 [k, g]를 [ㄱ, ㄲ, ㅋ] 셋 중의 하나로 골라서 발음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개념 확인 문제 본문 212쪽

1 ④
2 [닝큼], [혀븨] / [혀비], [우리의] / [우리에]

1 'ㅖ'가 전설 모음, 평순 모음, 중모음이고 'ㅒ'는 전설 모음, 평순 모음, 저모음이므로 'ㅖ'보다 'ㅒ'를 발음할 때는 입을 더 크게 벌려 혀의 위치를 낮게 하여 발음해야 한다.

2 표준 발음법 제5항의 '다만 3'에 따르면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ㅣ]로 발음하므로 '닝큼'은 [닝큼]으로 발음한다.

표준 발음법 제5항의 '다만 4'에 따르면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협의'는 [혀븨] 또는 [혀비]로 발음할 수 있다.

표준 발음법 제5항 '다만 4'에 따르면 조사 '의'는 [ㅔ]로 발음함도 허용한다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우리의'는 [우리의] 또는 [우리에]로 발음할 수 있다.

개념 확인 문제 본문 215쪽

1 ③ 2 (1) [말:] (2) [발] (3) [함방눈] (4) [성:인] 3 ⑤

1 비분절 음운은 소리의 길이나 강세 등이 모두 모음과 잘 결합하기 때문에 자음보다 모음에 더 잘 얹힌다.

오답 풀이 ①, ② 비분절 음운은 소리의 길이, 억양, 강세를 말하는 것으로, 말의 뜻을 구별해 준다는 점에서 자음이나 모음과 같은 자격을 갖는다.

④ 비분절 음운은 분절 음운이 음절을 구성할 때 그 위에 얹힌다.

⑤ 표준 발음법에서는 비분절 음운 중 소리의 길이만 음운으로 인정하고 있다.

2 (3) 길게 발음하는 소리도 둘째 음절에 오면 짧게 발음하므로 '[함방눈]'으로 발음하는 것이 옳다.

3 소리의 길이는 일반적으로 단어의 첫째 음절에서 말의 뜻을 구별해 준다.

개념 확인 문제 본문 217쪽

1 ① 2 ②

1 음소와 운소를 합한 것은 음운에 해당한다.

2 음절은 말소리의 한 단위일 뿐, 그 자체가 뜻을 지니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음절은 의미와 전혀 관계가 없는 단위이다. 음절은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지는데 자음은 혼자서는 음절이 될 수 없으므로 모음의 앞이나 뒤에 연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국어에 음절의 수는 모음의 수와 일치한다.

오답 풀이 ① ㉠으로 보아 자음이 없는 음절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과 ㉢으로 보아 자음 'ㅇ'은 초성에 올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④, ⑤ 국어에서 음절의 수는 모음의 수와 일치하는데, 그 이유는 음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전 문제 본문 219쪽

1 ⑤ 2 ① 3 ③ 4 ② 5 ① 6 ④

1 (ㄱ)은 단어들이 서로 다른 의미를 갖게 하는 음소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달'과 '딸'은 'ㄷ'과 'ㄸ'에 의하여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말이 되고, '감'과 '곰'은 'ㅏ'과 'ㅗ'에 의하여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말이 되며, '문'과 '물'은 'ㄴ'과 'ㄹ'에 의하여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말이 된다.

(ㄴ)은 소리의 길고 짧음 즉, 운소가 단어의 뜻을 구분하는 요소임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음소와 운소의 결합인 음운이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자립성이 있는 것은 음운이 아니라 단어이다.

② 음운은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다.

③ 다른 소리와 잘 나누어지는 것은 분절 음운인 자음과 모음에만 해당한다.

④ 음운은 일정한 조건에서 쉽게 변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동일 음운일 때 자리에 따라 서로 다른 음성으로 실현된다. 이를 변이음이라 한다.

2 ㉠ '말다툼'의 '말[言]'은 긴소리로 발음하는 단어로, 첫째 음절에 오므로 긴소리로 발음한다.

㉡ '발'은 '발[簾]'의 의미로 긴소리로 발음하는 단어이다.

㉢ '눈'은 '눈[眼]'의 의미로 짧은소리로 발음하는 단어이다.

㉣ '말'은 '말[馬]'의 의미로 짧은소리로 발음하는 단어이다.

㉤ '밤'은 '밤[栗]'의 의미로 긴소리로 발음하는 단어지만 둘째 음절에 오므로 짧게 발음한다.

3 'ㄱ, ㅋ, ㄲ, ㅇ'은 여린입천장소리(연구개음)로 혀의 뒷부분과 입천장 중에서 목구멍 쪽의 연한 부분을 사용하여 소리를 낸다. 한국어의 여린입천장소리는 구강에서 나오는 소리 중 가장 뒤쪽에 위치한다.

오답 풀이 ① 'ㅁ, ㅂ'은 입술소리이다.

② 'ㄲ, ㄸ, ㅆ, ㅉ'은 된소리이다.

④ 'ㄴ, ㅁ, ㅇ'은 비음이다.

⑤ 'ㄹ'은 유음이다.

4 'ㅖ'와 'ㅓ'를 소리 내 보면 입술 모양이나 혀의 높이에는 큰 변화가 없고 혀의 앞뒤 이동에 따른 차이가 있다. 'ㅖ'는 전설 모음으로, 발음할 때에 혀의 최고점 위치가 앞에 있고, 'ㅓ'는 후설 모음으로, 발음할 때에 혀의 최고점 위치가 뒤에 있다.

오답 풀이 ⑤ 'ㅜ'와 'ㅗ'를 소리 내 보면 혀의 전후 위치는 같고,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 소리를 낸다. 후설 모음, 원순 모음에 해당된다.

5 [A]에서 확인되는 최소 대립쌍은 '감'과 '밤', '겁'과 '컵', '문'과 '물'이다. 여기서 음운들을 추출하면, 각각 'ㄱ과 ㅂ', 'ㄱ과 ㅋ', 'ㄴ과 ㄹ'이다. 추출된 음운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ㄱ'이다. ㄱ은 파열음 – 여린입천장소리(예사소리)이므로 정답은 ①이다.

6 ⓑ에서 '어머님'의 '어'는 모음 단독으로 이루어진 음절이다.

오답 풀이 ① 음절은 자음 단독으로 이룰 수 없고, 음절이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모음이 있어야 한다.

② 음절은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의 단위이다.

③ 굳이는 '구'와 '지'의 2음절로 발음된다.

⑤ 음절은 말소리의 한 단위일 뿐 그것이 뜻을 지니고 있지 않다. '쀍'이라는 말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않지만 모음이 쓰였으므로 음절이라 볼 수 있다.

2 음운 변동의 종류

개념 확인 문제 본문 232쪽

1 ㉠ [거돋], ㉡ 'ㅅ'은 음절의 끝소리에서 'ㄷ'으로 발음해야 한다. ㉢ [나지], ㉣ [꼬뒤], ㉤ 실질 형태소인 '꽃'과 실질 형태소인 '위'의 결합이므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먼저 적용하고 이를 연음해야 한다. ㉥ [부어간]

2 ㉠ 비음화, ㉡ 비음 'ㄴ, ㅁ' 앞에서 'ㄱ, ㄷ, ㅂ'이 비음 'ㅇ, ㄴ, ㅁ'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 유음화, ㉣ 비음 'ㄴ'이 유음 'ㄹ' 앞뒤에서 'ㄹ'로 바뀌는 현상이다.

3 ① 4 ④ 5 ⑤ 6 ⑤

1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음절의 끝에서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이외의 자음이 올 경우, 이 일곱 개의 자음 중 하나로 바꾸어 발음하는 것이다. 만약 앞말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올 경우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한 후 연음하여 발음한다. 앞말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경우에는 앞말 받침소리를 뒷말 첫소리로 이어 발음한다. 이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 비음화는 받침으로 쓰이는 파열음 'ㄱ, ㄷ, ㅂ'이 비음 'ㄴ, ㅁ'의 영향을 받아 각각 비음 'ㅇ, ㄴ, ㅁ'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섭리[섬니], 독립[동닙]은 'ㄹ의 비음화'가 먼저 일어나고 다시 비음화가 된 것이다. 'ㄹ의 비음화'는 'ㄹ'이 'ㄱ, ㄷ, ㅂ' 끝소리에 이어날 때는 'ㄹ'이 먼저 'ㄴ'이 되고 앞의 'ㄱ, ㄷ, ㅂ'은 뒤의 'ㄴ'을 닮아 'ㅇ, ㄴ, ㅁ'으로 변한 것이다. 섭리 → [섭니] → [섬니], 독립 → [독닙] → [동닙]이 된 것이다.
㉡ 유음화는 'ㄴ'이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바뀌어 소리 나는 현상을 말한다. 비음화나 유음화는 앞말 받침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자음군 단순화를 겪은 후에 적용된다.

3 ① '설날'은 [설:랄]로 발음된다. 이는 뒤의 'ㄴ'이 앞의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소리가 나는 현상이므로 순행 동화이다.
오답 풀이 ② '논리'는 [놀리]로 발음된다. 이는 앞의 'ㄴ'이 뒤의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소리가 나는 현상이므로 역행 동화이다.
③ '밥물'은 [밤물]로 발음된다. 이는 앞의 'ㅂ'이 뒤의 'ㅁ'의 영향을 받아 'ㅁ'으로 소리가 나는 현상이므로 역행 동화이다.
④ '먹물'은 [멍물]로 발음된다. 이는 앞의 'ㄱ'이 뒤의 'ㅁ'의 영향을 받아 'ㅇ'으로 소리가 나는 현상이므로 역행 동화이다.
⑤ '잡는다'는 [잠는다]로 발음된다. 이는 앞의 'ㅂ'이 뒤의 'ㄴ'의 영향을 받아 'ㅁ'으로 소리가 나는 현상이므로 역행 동화이다.

4 자료는 표준 발음법 제17항으로 구개음화에 대한 규정이다. 구개음화의 사례가 제시된 것은 ④이다.
오답 풀이 ①은 유음화, ②와 ④는 구개음화, ③은 비음화, ⑤는 ㄹ의 비음화에 대한 사례이다.

5 ⑤ '안기다'와 '감기다'는 피동 접미사가 결합한 경우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적절한 사례로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파열음 'ㄱ, ㄷ, ㅂ' 뒤에 연결되는 자음 'ㄱ, ㄷ, ㅂ, ㅅ, ㅈ'는 된소리로 발음된다. '입고[입꼬]'는 'ㅂ' 뒤에, '닫다[닫따]'는 'ㄷ' 뒤에 된소리되기가 나타난 예이다.
② 어간 받침인 'ㄴ(ㄵ), ㅁ(ㄻ), ㄼ, ㄿ' 뒤에서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는 된소리로 발음된다. '넓다[널따]'와 '핥다[할따]'는 여기에 해당하는 예이다.
③ 관형사형 어미 '-ㄹ' 뒤에 연결되는 자음 'ㄱ, ㄷ, ㅂ, ㅅ, ㅈ'는 된소리로 발음된다. '할 것을[할꺼슬]'과 '만날 사람[만날싸람]'은 여기에 해당하는 예이다.
④ 한자어 'ㄹ' 받침 뒤에서 'ㄷ, ㅅ, ㅈ'는 된소리로 발음된다. '갈등[갈뜽]'과 '발달[발딸]'은 여기에 해당하는 예이다.

6 〈보기〉의 예는 'ㅣ' 모음 역행 동화의 예이다. 'ㅣ' 모음 역행 동화는 후설 모음 'ㅏ, ㅓ, ㅗ, ㅜ'가 뒤에 오는 전설 모음 'ㅣ'의 영향을 받아 각각 'ㅐ, ㅔ, ㅚ, ㅟ'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이다.

개념 확인 문제 본문 237쪽

1 ③ **2** 향긋한, 햐얗게

1 표준 발음법 제12항은 거센소리되기에 대한 규정이다. ㉠은 순행적 거센소리되기, ㉡은 역행적 거센소리되기, ㉢은 거센소리되기에서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하나의 어절로 발음될 때, 앞 단어의 끝 자음과 뒤 단어의 첫 자음 'ㅎ' 사이에서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규정이다. '쌓지'가 [싸치]로 발음되는 것은 ㉠ 순행적 거센소리되기 규정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놓고[노코]'는 받침 'ㅎ' 뒤에 'ㄱ'이 결합된 경우로,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져 [ㅋ]으로 발음된다.
② '좋던[조턴]'은 받침 'ㅎ' 뒤에 'ㄷ'이 결합된 경우로,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져 [ㅌ]으로 발음된다.
④ '법학[버팍]'은 받침 'ㅂ'이 뒤 음절 첫소리 'ㅎ'과 결합하여 [ㅍ]으로 발음된다.
⑤ '옷 한 벌[오탄벌]'에서 '옷'은 [옫]으로 발음되는 경우로, [붙임 2]에 따라 발음한 것이다.

2 '향긋한'은 '향긋-+-한'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향긋'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향귿]으로 발음하고 여기에 '한'이 결합하면 자음 축약에 따라 [향그탄]으로 발음하게 된다. '하얗게'는 '하얗-+-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하얗'의 음절의 끝소리 'ㅎ'과 뒤의 'ㄱ'이 만나 자음 축약에 따라 [하야케]로 발음하게 된다.

개념 확인 문제 본문 240쪽

1 ② **2** ③
3 앞 자음 탈락: 닭, 삶, 맑다
뒤 자음 탈락: 넋, 앉다, 여덟

1 ②의 '놓는'은 [논는] → [논는]으로 발음된다. 이는 'ㅎ'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해 'ㅎ'이 [ㄴ]으로 소리 나는 현상이다. 'ㅎ'이 [ㄴ]으로 발음되려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먼저 'ㅎ'의 대표음인 [ㄷ]으로 바뀐 후 'ㄴ'에 동화되어 비음화에 따라 [ㄴ]으로 소리 나는 것이다. 즉, ②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후 비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2 〈보기〉는 음운의 탈락 현상으로, 모음 탈락에 해당한다. 어간 끝 모음 'ㅡ'가 '-아/-어'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ㅡ 탈락'과 어미 첫 모음 'ㅡ'가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이나 어간 끝 자음 'ㄹ' 뒤에서 탈락하는 'ㅡ 탈락'이 있다. 또한 어미 첫 모음 '-아/-어'가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아-/어-' 뒤에서 탈락하는 'ㅏ/ㅓ' 탈락이 있다. ㉣ '살-+-으면→[살면]'은 어미 첫 모음 'ㅡ'가 어간 끝 자음 'ㄹ' 뒤에서 탈락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④ ㉤ '가-+-아서 → [가서]'와 '건너-+-어서 → [건너서]'는 어미 첫 모음 '-아/-어'가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아-/어-' 뒤에서 탈락한 경우이다.

3 자음군 단순화는 음절 말의 겹받침 가운데 하나가 탈락하고 하나만 발음되는 현상을 말한다. '닭'은 [닥]으로, '삶'은 [삼]으로, '맑다'는 [막따]로 발음하므로 겹받침 가운데 앞에 있는 자음이 탈락하는 예이다. 반면 '넋'은 [넉]으로, '앉다'는 [안따]로 '여덟'은 [여덜]로 발음하므로 겹받침 가운데 뒤에 있는 자음이 탈락하는 예이다.

개념 확인 문제 본문 243쪽

1 ①
2 ㉠ 손등/나룻배, ㉡ 아랫마을, ㉢ 아랫니, 뒷일

1 '눈+요기'는 앞말의 음절 말 자음이 'ㄴ'이고 뒷말의 첫음절이 'ㅣ' 모음으로 시작하므로 뒷말의 첫소리에 'ㄴ' 첨가 현상이 일어나 [눈뇨기]로 발음된다. 따라서 ㉠은 'ㄴ' 첨가 현상이 일어났으므로 정답이다.
오답 풀이 ② '몇+리'는 앞말의 음절 끝에 'ㅊ'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대표음 'ㄷ'으로 발음되고, 'ㄷ'이 뒷말의 첫소리 'ㄹ'을 만나 비음 'ㄴ'으로 바뀌는 비음화 현상이 일어나 [멷리] → [면니]로 발음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은 'ㄴ' 첨가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오답이다.
③ '콩+엿'은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음절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경우이므로 뒷말의 첫소리에 'ㄴ'이 첨가되었다. 뒷말의 음절 말 자음 'ㅅ'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대표음 'ㄷ'으로 발음되어 [콩녇]으로 발음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은 'ㄴ' 첨가 현상이 일어났으므로 오답이다.
④ '놀+으나'는 용언 어간의 자음 'ㄹ' 뒤에서 어미 모음 '-으나'의 '으'가 먼저 탈락하고 난 뒤 자음 'ㄴ' 앞에서 'ㄹ' 탈락'이 일어나 [노나]로 발음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은 '반모음 첨가'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오답이다.
⑤ '베+어서'는 앞말이 'ㅣ'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ㅓ'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므로 어미 첫 모음 앞에 반모음 'ㅕ'가 첨가되어 [베여서]로 발음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은 '반모음 첨가' 현상이 일어났으므로 오답이다.

2 ㉠의 예로는 '손등[손뜽]', '나루+배 → 나룻배[나루빼]'가 있다. ㉡의 예로는 '아래+마을 → 아랫마을[아랜마을]'이 있다. ㉢의 예로는 '아래+이 → 아랫이[아랜니]'와 '뒤+일 → 뒷일[뒨닐]'이 있다.

실전 문제 본문 244쪽

1 ⑤ **2** ④ **3** ⑤ **4** ⑤ **5** ④ **6** ⑤ **7** ①

1 ⑤ '잡혀'는 '잡-+-히-+-어'가 결합한 말로 우선 'ㅂ'과 'ㅎ'이 축약되어 [자피어]가 된다 또한, 'ㅣ'와 'ㅓ'가 축약되어 [자펴]로 발음된다. 즉, '잡혀[자펴]'에는 음운의 축약 현상만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늦여름'은 '늦-+여름'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 '늦'이 '[늗]'으로 발음된다. '[늗]+여름'은 합성어이면서 앞 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음절이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하는 경우로 뒷말의 초성 자리에 'ㄴ'이 첨가된다. 따라서 '[늗+녀름]'이 되는데 여기에 다시 비음화(비음 동화)가 일어나 [는녀름]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늦여름[는녀름]'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ㄴ' 첨가, '비음화(비음 동화)'가 일어났으므로 교체와 첨가의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굳히다'는 '굳-+-히-+-다'로 '굳'의 'ㄷ'이 뒤에 있는 'ㅎ'을 만나 'ㅌ'이 되는 축약 현상이 먼저 일어난다. 그 다음 'ㅣ' 모음의 영향을 받아 'ㅌ'이 'ㅊ'으로 발음되는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난다. 따라서 '굳히다[구치다]'는 교체와 축약의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막-+일'은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의 첫째 음절이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하므로 초성 자리에 'ㄴ' 첨가가 일어나 [막닐]이 된다. 그 다음 받침으로 쓰인 'ㄱ'이 비음 'ㄴ' 의 영향을 받아 'ㅇ'으로 바뀌는 비음화를 겪어 [망닐]로 발음하게 된다. 따라서 '막일[망닐]'은 비음화와 'ㄴ' 첨가가 일어났으므로 첨가와 교체의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맑지'는 자음군 단순화를 먼저 겪어 [막지]로 발음되고 이어 끝소리 'ㄱ'과 뒤에 연결되는 자음 'ㅈ'이 만나 된소리로 발음하게 된다. 따라서 '맑지[막찌]'는 자음군 단순화와 된소리되기가 일어났으므로 탈락과 교체의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음절의 끝에 'ㄱ, ㄴ, ㄷ, ㄹ, ㅁ, ㅂ, ㅇ' 이외의 받침이 올 경우 이 7개의 자음 중 하나로 바꾸어 발음되는 현상을 말한다.

오답 풀이 ① '히읗'을 발음하면 [히읃]으로 음절 끝의 자음이 바뀐다.

② 음절 끝의 자음이 바뀐 경우는 '밑[믿], 밖[박], 낮[낟], 옷[옫], 부엌[부억], 빛[빋], 히읗[히읃], 졌다[젇따], 숲[숩]'이다. '히읗[히읃]'과 '숲[숩]'이 추가되어야 한다.

③ ㉢에는 대표음 7개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을 제시해야 한다. 'ㅅ'은 음절 끝에서 발음되지 않는다.

⑤ 제시된 예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아니라 자음군 단순화이다. 자음군 단순화는 음절의 끝에 겹받침이 올 때, 두 자음 중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으로 음운 탈락에 속한다.

3 '굳히다'가 [구티다] → [구치다]로 발음되는 이유는 구개음화가 두 자음이 하나로 축약된 다음에도 일어나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구개음화는 음운의 동화로 조음 위치가 바뀌면서 발음의 경제성이 높아졌다.

② 구개음화는 실질 형태소의 끝소리 'ㄷ, ㅌ'이 형식 형태소인 모음 'ㅣ'나 반모음 'ㅣ' 앞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③ 구개음화는 한 형태소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으므로 '마디[마디]는 [마지]처럼 구개음화되지 않는다.

④ 구개음화는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의 결합 환경에서 일어난다. '곧이어'가 [고지어]가 아닌 [고디어]로 발음되는 이유는 실질 형태소끼리 결합한 단어[곧(부사)+이어(부사)]이기 때문이다.

4 '물약'은 [물냑] → [물략]으로 발음되는데, 이는 'ㄴ' 첨가가 일어난 뒤, 'ㄹ'의 영향으로 유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철수는 'ㄴ' 첨가만 하여 [물냑]이라고 부정확한 발음을 하였다. ⑤에서 철수가 유음화만 적용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맑네'는 [막네] → [망네]로 발음되는데, 이는 자음군 단순화(탈락)가 일어난 뒤 비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철수는 자음군 단순화만 적용하여 [막네]라고 부정확한 발음을 하였다.

② '낮일'은 [낟일] → [난닐]로 발음되는데, 이는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 일어난 뒤, 'ㄴ 첨가', '비음화'가 일어난 것이다. 철수는 연음을 하여 [나질]이라고 부정확한 발음을 하였다.

③ '팥죽'은 [팓죽] → [팓쭉]으로 발음되는데, 이는 음절의 끝소리 현상이 일어나고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것이다. 철수는 음절의 끝소리 현상만 적용하여 [팓죽]이라고 부정확한 발음을 하였다.

④ '긁고'는 [글고] → [글꼬]로 발음되는데, 이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고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것이다. 철수는 자음군 단순화만 적용하여 [글고]라고 부정확한 발음을 하였다.

5 선생님은 '거센소리되기'를 설명하고 있다. '좋아서'는 용언 어간 끝소리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아서' 앞에 올 때 'ㅎ' 탈락이 일어나 [조:아서]로 발음된다. '않은'은 용언 어간의 끝소리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 올 때 'ㅎ' 탈락이 일어나 [안은]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④는 'ㅎ' 탈락의 사례이므로 정답이다.

오답 풀이 ① '국화'는 예사소리 'ㄱ'과 'ㅎ'이 만나 거센소리 'ㅋ'으로 줄어들어 [구콰]로 발음된다. '낙하'는 예사소리 'ㄱ'과 'ㅎ'이 만나 거센소리 'ㅋ'으로 줄어들어 [나카]로 발음된다. 따라서 ①은 거센소리되기의 사례에 해당한다.

② '급행'은 예사소리 'ㅂ'과 'ㅎ'이 만나 거센소리 'ㅍ'로 줄어들어 [그팽]으로 발음된다. '입학'은 예사소리 'ㅂ'과 'ㅎ'이 만나 거센소리 'ㅍ'로 줄어들어 [이팍]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②는 거센소리되기의 사례에 해당한다.

③ '낳고'는 'ㅎ'과 예사소리 'ㄱ'이 만나 거센소리 'ㅋ'으로 줄어들어 [나:코]로 발음된다. '옷하고'는 옷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옫'으로 발음되고, 예사소리 'ㄷ'과 'ㅎ'이 만나 거센소리 'ㅌ'으로 줄어들어 [오타고]로 발음된다. 따라서 ③은 거센소리되기의 사례에 해당한다.

⑤ '듬직한'은 예사소리 'ㄱ'과 'ㅎ'이 만나 거센소리 'ㅋ'으로 줄어들어 [듬지칸]으로 발음된다. '잡히다'는 예사소리 'ㅂ'과 'ㅎ'이 만나 [자피다]로 발음된다. 따라서 ⑤는 거센소리되기의 사례에 해당한다.

6 ㉠~㉤은 어떠한 환경에서 원래 있던 한 음운이 사라져 소리가 나지 않는 현상으로 음운 탈락이라고 한다. 음운 탈락에는 자음군 단순화, 모음 탈락, 자음 탈락이 있다. ㉤은 'ㅎ' 탈락으로 용언의 어간 끝 자음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즉, 어미나 접사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이다.

7 표준 발음법에 따른 발음이 아닌 것은 ㉠과 ㉣이다. 제11항에 따르면 ㉠ '읽기'는 [일끼]로 읽는 것이 옳고, 제13항에 따르면 ㉣ '갚아라'는 [가파라]로 읽는 것이 옳다.

오답 풀이 ㉡의 '읽다'는 제11항의 내용인 겹받침 'ㄺ'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으로 발음한다는 규정에 따라 [익따]로 읽는 것이 옳다.

㉢의 '맑은가'는 제13항에서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는 규정에 따라 [말근가]로 읽는 것이 옳다.

Ⅳ. 담화

01 | 담화의 구성과 기능

2 담화의 구성 단위와 요소

개념 확인 문제 본문 260쪽

1 ② 2 ② 3 ③

1 발화는 문장의 형식도 되고, 단어의 형식으로도 실현될 수 있다. 반드시 여러 문장으로 이루어진 것만을 발화라고 하지 않는다.

2 '학교 앞 천천히!' 등과 같은 발화는 특정한 상황에서 하나의 발화가 하나의 담화로 성립하는 예이다.

오답 풀이 ① '대화'는 담화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③ 두 문장 이상이 단지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담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④ 담화의 구성 요소는 '화자, 청자, 메시지, 언어, 장면'이다.

⑤ '불이야', '정숙' 등도 어떤 장면에서 발화되느냐에 따라 담화로 성립할 수 있다.

3 ㉢은 감탄을 나타내는 직접 발화, ㉤은 명령을 나타내는 직접 발화이다.

오답 풀이 ㉠은 '도와줘'라는 명령에 대한 간접 발화이다.

㉡은 '떠나자'는 권유나 '떠나라'는 명령에 대한 간접 발화이다.

㉣은 '조용히 해'의 명령, '조용히 하자'는 권유에 대한 간접 발화이다.

㉤은 '만나자'는 권유에 대한 간접 발화이다.

3 담화의 기능과 유형

개념 확인 문제 본문 263쪽

1 (1) ㉠ (2) ㉣ (3) ㉤ (4) ㉢ (5) ㉡
2 (1) ㉣ (2) ㉢ (3) ㉠ (4) ㉤ (5) ㉡

2 (1)은 안부를 물어보는 인사말로 친교의 기능, (2)는 여행을 보내 주겠다는 청자에 대한 약속의 기능, (3)은 훈민정음의 반포에 대한 정보 전달의 기능, (4)는 회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의 기능, (5)는 자신을 시장으로 뽑아 달라는 호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담화이다.

실전 문제 본문 264쪽

1 ① 2 ⑤

1 ㉠은 남자 친구인 철수의 옷을 영희 자신에게 (걸쳐) 달라는 의도의 발화로, 문장 유형과 발화 의도가 불일치하며 의도를 상황에 맞춰 표현한 간접 발화인데 비해, ㉢은 문장 유형과 발화 의도가 일치하는 직접 발화이다.

오답 풀이 ② ㉠과 ㉡에 대한 영희의 발화 행위는 같다.

③ ㉠과 ㉢에 대한 영희의 발화 수반 행위는 다르다. ㉠의 발화 수반 행위는 철수의 옷을 자신에게 (걸쳐) 달라는 의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비해, ㉢의 발화 수반 행위는 발화 행위 그대로의 뜻을 단순히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④ ㉡은 영희가 남자 친구인 철수의 옷을 자신에게 (걸쳐) 달라는 의도를 모르는 철수와 발화 행위 그대로의 뜻인 '진짜 헤어지자'는 뜻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도, '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해서 지금 화가 났다'는 뜻을 전달하고자 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은 발화 행위 자체의 뜻과 발화 수반 행위가 다를 수 있다.

⑤ ㉣은 단지 자신이 매우 춥다는 것을 전달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을 피하려고 빨리 교실로 들어가자고 하는 직접 발화이다.

2 (가)~(라)의 괄호 안의 내용은 모두 발화나 담화가 일어나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학교 앞, 천천히'는 어절 수준의 문자로 표현된 발화로, 담화이다.

② 도서관 열람실 입구에서 발화한 '조용히'처럼 특정 상황에서는 단어 수준의 발화도 담화가 될 수 있다. 담화가 꼭 문장보다 큰 단위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오늘은 난 볶음밥이야!'는 식당에서 볶음밥을 주문하겠다는 의미의 담화이다. 음성 발화에서는 비문법적인 문장도 담화가 되는 경우가 흔하다.

④ '편히 주무셨습니까?'는 '정보 확인'을 위한 발화가 아니라, 친교 목적의 발화이다.

02 | 담화의 구조와 표현

2 담화의 특성

개념 확인 문제 본문 275쪽

1 (1) ㉣ (2) ㉡ (3) ㉢ (4) ㉠

2 세 개 발화는 하나의 통일된 주제로 묶여 있지 않아 응집성이라는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정상적인 담화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수업 시간에 각자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을 발표하는 상황 등과 같은 장면에서는 담화로 성립할 수 있다.

3 이것은 / 이는, 물론, 그런데, 그러니까 / 그러므로, 그렇게 하면 / 그러면

3 담화의 표현

개념 확인 문제 본문 279쪽

1 (1) ㉢ (2) ㉡ (3) ㉣ (4) ㉠

2 (예시 답) 성환은 '이보게'라는 하게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나이가 중년 이상임을 알 수 있으며, 형우도 매우 어린 나이는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성환이 하게체를 사용하는 데 비해, 형우는 하십시오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성환과 형우는 동네 어른과 동네 젊은이 또는 나이가 어느 정도 든 교수와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제자 정도의 관계임을 짐작할 수 있다.

3 ㉠은 단순한 사실의 전달, 단정의 심리적 태도를, ㉡은 믿음이나 확신을, ㉢은 추정이나 추측을, ㉣은 의심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낸다.

실전 문제 본문 280쪽

1 ⑤

1 ⑤의 '~ㄹ 것이다', '-겠-', '~ㄹ 모양이다', '~ㄹ 것 같다'는 모두 화자나 필자의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설명문은 독자가 궁금해하는 내용이 풍부하여야 한다는 '정보성',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용이성',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는 '사실성', '객관성' 등을 특성으로 한다. 화자나 필자의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사실성, 또는 객관성이 결여된 담화가 되기 때문에 설명문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V. 어문 규범

01 | 표준에 맞게 말하기

1 표준어의 개념 및 규정

개념 확인 문제 본문 292쪽

1 ② 2 ④ 3 ②

1 서울 사람이 모두 교양 있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말 가운데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말이 표준어의 자격을 갖는 것이다. 또한 서울말은 표준어 사정의 원칙이되 필수 조건은 아니다.

2 ④는 발음 변화에 따라 표준어를 선정한 것이며 나머지는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라 표준어를 선정한 것이다. ④의 '살쾡이–삵괭이'에서 거센소리를 가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제3항]

오답 풀이 ①의 고유어 '맞상'과 ③의 고유어 '둥근파'는 생명력을 잃고 대응하는 한자어 '겸상(兼床)'과 '양파(洋파)'가 더 널리 쓰여 표준어가 되었다. ②의 '오얏'과 ⑤의 '애닯다'는 사어(死語)가 되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3 속된 말도 언중들이 널리 사용할 경우 표준어로 인정하기도 하다. 예를 들어 '개기다'는 명령이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버티거나 반항하는 것을 속되게 이르는 말인데 표준어이다.

2 표준 발음법

개념 확인 문제 본문 298쪽

1 ⑤ 2 ②

1 둘 이상의 발음을 표준으로 인정한 것은 실제 발음의 다양한 양상을 모두 표준 발음으로 본다는 점에서 실제 발음을 고려한 것이다.

2 '밟다'의 'ㄻ' 받침은 [ㅂ]으로 발음한다.

오답 풀이 ① 'ㅍ'은 받침에서 [ㅂ]으로 발음하는데, 뒤에 오는 'ㄴ'에 동화되어 [음는다]로 발음한다.

③ 'ㄺ' 받침은 뒤에 'ㄱ'이 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ㄱ]으로 발음하므로 [익찌]로 발음한다.

④ 겹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올 경우 연음 법칙이 먼저 적용되므로 [달기]로 발음한다.

⑤ 'ㄻ'은 받침에서 [ㄹ]로 발음하며 뒤에 오는 'ㄴ'은 유음화가 되므로 [짤레요]로 발음한다.

실전 문제 본문 299쪽

1 ① 2 ⑤ 3 ② 4 ②

1 〈표준어 규정〉이 바뀐 것이 아니다. 1988년에 제정된 〈표준어 규정〉의 원칙과 세부 조항에서 허용한 원칙 안에서 국민의 언어 사용의 변화에 따라 새로 표준어를 추가한 것이다. 기사문에서 "복수 표준어는 1988년 제정된 표준어 규정이 이미 허용한 원칙을 따르는 것으로 이미 써 오던 것과 추가로 인정된 것을 모두 교과서나 공문서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표현에서 규정이 바뀐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한글 맞춤법〉이나 〈표준어 규정〉 같은 어문 규범을 자주 바꾸면 국민이 언어 생활하는 데 불편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규범 자체는 함부로 바꾸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② 현재 표준어로 규정된 말 이외의 말을 표준어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 복수 표준어를 확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첫째 항목에 따르면 현재 표준어로 규정된 '자장면' 이외에 '짜장면'을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 것은 '짜장면'이 '같은 뜻으로 많이 쓰이는 말'이기 때문이다.

④ 둘째 항목에 의하면 '오순도순' 외에 '오손도손'을 별도 표준어로 인정한 것은 두 단어 사이에 어감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⑤ 현재 표준어로 규정된 말 이외의 말을 복수 표준

어로 인정한 것은 '현대인이 쓰는 말'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표준어 원칙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2 〈보기〉에 쓰인 표준어 사정 원칙에 담긴 표준어와 비표준어를 가르는 기준은 어떤 단어가 더 널리 쓰이는가이다. 하지만 표준어 사정 원칙에서 널리 쓰이는 정도를 정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준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웃옷'은 맨 겉에 입는 옷이란 뜻이다. 〈보기 1〉의 '다만 2'에 의하면 '웃옷'을 '윗옷'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 단어이기 때문이지, '아랫옷'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 〈보기 2〉에 의하면 바지나 아래쪽에 입는 '아래옷'에 대해 몸의 위쪽에 입는 옷은 '윗옷'이라고 함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남한에서는 '윗돌', 북한에서는 '웃돌'이라고 규정하는 것으로 보아 '웃'과 '윗'에 대한 남북한의 규정이 다름을 알 수 있다.

4 'ㄹ'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올 때 뒤에 'ㄱ'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되 'ㄹ'을 탈락시키지 않으므로 [통달기]로 발음한다.

02 어법에 맞게 쓰기

1 한글 맞춤법의 원칙과 주요 규정

개념 확인 문제 본문 312쪽

1 ⑤ 2 ②

1 표준어 규정은 '말을 통일하기 위한 규정'이고, 한글 맞춤법은 '글(표기)을 통일하기 위한 규정'이다.

오답 풀이 ①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표기하는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② 맞춤법 개정은 언중에게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개정하지 않는다. 수시로 개정할 경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③ 띄어쓰기 규정은 〈한글 맞춤법〉 제5장에 속해 있다. 〈한글 맞춤법〉 부록에는 '문장 부호'가 있다.

④ 〈한글 맞춤법〉은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기본으로 1988년 1월 문교부에서 고시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 현행 맞춤법은 2017년 3월에 문화 체육 관광부에서 고시한 것이다.

2 ㉡의 '제'는 '그 숫자에 해당되는 차례'라는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자립성이 없으므로 뒤에 오는 숫자와 붙여 써야 한다.

오답 풀이 ③ '만'은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붙여 써야 하므로 맞는 설명이다.

④ '게'는 '것이'의 준말로, 의존 명사 '것'에 조사 '이'가 붙어 쓰인 것이다. 의존 명사는 띄어 써야 하므로 맞는 설명이다.

⑤ '첫사랑'은 '처음으로 느끼거나 맺은 사랑'의 뜻으로, 국어사전에 한 단어로 등록되어 있어 맞는 설명이다.

2 외래어 표기법

개념 확인 문제 본문 317쪽

1 ⑤ 2 ①

1 외래어는 국어의 음운 체계에 동화된 대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다.

오답 풀이 ① 된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파열음에 한정되며, 경우에 따라 된소리 표기를 허용하기도 한다.

② 외래어는 원어의 발음에 가깝게 표기하는 것이 아닌 국어의 음운 체계에 동화된 대로 적는 것이 원칙이다.

③ 한글은 한국어를 쓰기에 특화된 문자로 모든 외래어의 발음을 원음대로 적을 수는 없다.

④ 한자어의 표기는 〈한글 맞춤법〉에서 다룬다.

2 '라디오', '카메라' 등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관용에 따른다.

오답 풀이 ② 된소리를 사용하지 않는 원칙은 파열음의 경우에 해당한다. 's'는 마찰음이므로 이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구 외래어의 경우는 마찰음 'ㅅ'은 'ㅆ'을 사용하지 않는다'에 해당한다.

③ '외래어의 1 음운은 원칙적으로 1 기호로 적는다는 원칙[제2항]에 따라 영어의 'f'는 일관되게 'ㅍ'으로 적는다'에 해당한다.

④ 커피숍(coffee shop)처럼 'p'를 받침으로 옮길 때는 'ㅂ'으로 적는다.

⑤ 'cake'는 '케이크'로 적는다.

3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념 확인 문제 본문 320쪽

1 ④ 2 ④ 3 ⑤

1 고유 명사 중 인명에 한해서만 음운 변화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제3장 제4항-1].

2 이름의 음절 사이는 어떤 경우에도 띄어 쓰지 않는다. 다만 붙임표(-)를 사용하여 필요에 따라 음절 경계를 구분할 수 있다. 대문자는 성과 이름의 첫 글자에만 각각 사용한다.

3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서 'ㄹㄹ'은 'll'로 표기하도록 규정하였다. '대관령'은 [대괄령]으로 발음하므로 이 규정에 따라 'Daegwallyeong'으로 표기하는 것이 옳다.

오답 풀이 ① 고유 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어야 한다.

② 모음 앞의 받침 'ㄹ'은 'r'로 표기해야 한다.

③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Apgujeong'으로 표기해야 한다.

④ 이름은 첫음절만 대문자로 표기한다.

실전 문제 본문 321쪽

1 ③ 2 ① 3 ④ 4 ③ 5 ⑤ 6 ③ 7 ③

1 한글 맞춤법은 단어를 구성하는 형태소의 본 모양인 '원형'을 밝히어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며칠'은 얼핏 '몇+일'로 형태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 단어가 본래 '몇일'이었다면 음운 변동의 원리에 따라 '[멷일](음절의 끝소리 규칙) → [멷닐]('ㄴ' 첨가) → [면닐](비음화)'의 과정을 거쳐 최종 [면닐]로 발음해야 한다. 하지만 '날짜'의 의미든 '기간'의 의미든 언중들은 항상 [며칠]로 발음한다. 그러므로 '며칠'은 '몇 년'이나 '몇 월'처럼 관형사 '몇'에 명사 '월'이나 '일'이 뒤에 오는 말이 아니라 '며칠' 자체를 한 단어로 본다.

오답 풀이 ㉠ '며칠'을 '몇'과 '날'을 나타내는 '일(日)'의 결합으로 보면 '몇 일 → [멷닐] → [면닐]'로 발음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며칠]로 발음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며칠'은 '몇'과 '일'로 분석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몇일'은 '몇'과 '일'로 분석할 수 있어 보이지만 규범에 어긋난 표현으로, 분석할 수 없고 '며칠'이 맞는 표현이다.

㉢ '몇일' 대신에 모두 '며칠'로 써야 한다.

㉣ '이틀'을 '일흘'로 쓰지 않는 것은 '며칠'을 '몇 일'로 쓰지 않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2 두음 법칙은 원칙적으로 한자어에 적용되는 음운 규칙이다. '냠냠'은 어린아이들이 음식을 맛있게 먹는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로 순우리말이므로, 한자어에 적용하는 [제10항]의 두음 법칙 표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3 '귓병, 찻잔'은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이고, '양칫물, 훗날'은 한자어와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임을 고려할 때, 순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의 사이시옷 사용에서 순우리말과 한자어의 순서는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순우리말+순우리말'로 된 합성어 중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거나 사잇소리가 첨가될 경우에 한해 사이시옷을 쓴다.

② 규정에서 허용한 6개의 한자어에만 사이시옷을 쓴다.
③ 사이시옷 규정은 사이시옷을 적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규정에 없는 '외래어' 합성어에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다.
⑤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적는 규정이므로, 올바른 표기를 위해서는 표준 발음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인사말'의 표준 발음은 [인사말], '노랫말'의 표준 발음은 [노랜말]이므로 합성어에서 사잇소리가 덧나는 '노랫말'은 사이시옷을 적는다.

4 '맨몸'에서 '맨-'은 접두사이다. '맨몸'은 한 단어이므로 국어사전에 수록되어 있다.

5 (5)의 '만하다'는 보조 용언인데 보조 용언 사이에 보조사 '도'가 들어온 경우이다. 따라서 '만'은 의존 명사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일반적으로 조사가 겹쳐서 쓰일 때는 격조사가 먼저 나오고 보조사가 나타나지만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조사(만)+격조사(이)'의 결합 형태로 나타났다.
② '만'은 '앞말이 나타내는 대상이나 내용 정도에 달함'의 의미를 지닌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쓰고, '하다'의 활용형인 '한'은 띄어 쓴다.
③ '만'은 의존 명사이며 '이다'는 서술격 조사이다.
④ '만한'은 보조 용언 '만하다'의 활용형이며, 본용언 '손꼽다'에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씀도 허용한다.

6 외래어의 1 음운은 1 기호로 적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수 규정은 아니다. 반면 받침에 'ㄱ, ㄴ, ㄹ, ㅁ, ㅂ, ㅅ, ㅇ'의 7가지만 쓰는 것은 필수 규정이다. 그러므로 'shop'에서 'p'는 'ㅂ'으로 적는다.

7 1 음운은 1 기호로 적는 원칙은 로마자 표기법에는 없다. '건국'을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쓰면 'Geonguk'이 된다. 하지만 인명이나 회사명, 단체명과 같이 오랫동안 써 왔던 고유 명사 표기를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즉, Konkuk은 '건국'을 그동안 써 온 표기대로 쓴 것이다.

03 | 좋은 표현법 사용하기

1 문장 다듬기

개념 확인 문제 본문 334쪽

1 ④ **2** ⑤
3 (1) 민수는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야구 경기를 더 좋아한다.
(2) 민수는 내가 야구 경기를 좋아하는 것보다 더 야구 경기를 좋아한다.

1 ④는 불필요한 피동문으로 '이 건물은 신라인이 만들었다'처럼 능동문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나머지는 하나의 문장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중의문이다.
오답 풀이 ① '모자를 쓰는 동작'이거나 '모자를 쓰고 있는 상태'로 해석된다.
② '출석한 학생이 없다.'거나 '출석하지 않은 학생이 몇 명 있다.'로 해석된다.
③ '지우가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축구를 더 좋아한다.'거나 '지우는 내가 축구를 좋아하는 것보다 더 축구를 좋아한다.'로 해석된다.

2 '식습관'과 '운동' 모두 '필요하다'와 적절한 호응을 이루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여간'은 '~지 않다'와 같이 부정하는 말과 호응한다. '그것은 여간 재미있지 않다.'로 고쳐야 한다.
② 조사 '치고'는 앞에 오는 명사의 속성과 대립하는 의미의 서술어와 어울린다. '그는 가수치고 노래를 못한다.'로 고쳐야 한다.
③ '바람'은 서술어 '불었다'와 호응할 수 있지만 '비'는 가능하지 않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었다.'로 고쳐야 한다.
④ '자연을 지배하다.'는 가능하지만, '자연을 복종하다.'는 가능하지 않다. '복종하다' 앞에 이와 어울리는 '자연에'를 넣어야 한다.

3 중의문 중에는 비교 대상이 불분명해서 생기는 중의문이 있다. 주어진 문장은 민수가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야구 경기를 더 좋아하는 것인지, 내가 야구 경기를 좋아하는 것보다 더 야구 경기를 좋아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2 표준 화법 알기

개념 확인 문제 본문 338쪽

1 ② 2 ② 3 ⑤

1 장성한 뒤에도 격식을 갖추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빠, 엄마'를 쓸 수 있다. 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 비해 며느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대체로 많다. 따라서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보다 친근한 대상이므로 '어머님'과 '어머니' 두 가지를 쓸 수 있다.

2 부모를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낮추어 말하는 것은 전통적인 어법에 어긋난다.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는 항상 높여 말한다. ① 직장 내에서는 가리키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보다 직급이 높을 경우에는 듣는 사람의 직급에 관계없이 높여 말한다. 즉, 직장 내에서는 압존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중간에서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는 손아랫사람을 손윗사람에게 먼저 소개해야 한다. ② 윗사람에게는 '수고하세요.'라는 인사말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지만 아랫사람에게는 써도 무방하다.

3 문장 부호 알기

개념 확인 문제 본문 342쪽

1 ⑤ 2 ③

1 문장 부호와 형태가 같더라도 전문 분야에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전문 기호로 보아야 한다.

2 쉼표(,)는 '철수야, 빨리 오너라.'와 같이 부르는 말 뒤에 사용한다.

오답 풀이 ① 연, 월, 일 뒤에 모두 마침표를 찍는다.
② '법률 이름'은 '홑낫표(「 」)'로 표시한다.
④ 숨김표는 빠진 글자의 수요만큼 쓴다.
⑤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드러낼 때는 작은따옴표를 쓴다.

실전 문제 본문 343쪽

1 ⑤ 2 ⑤ 3 •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한 문장에 주어와 서술어가 3개가 있는데(안은문장이 포함되어 있는 구조), 호응하는 주어와 서술어가 떨어져 있어서 잘 연결되지 않는다. • 고친 문장: 은희가 노래하는 것을 민서가 보았다고 건희가 말했다.

1 가운뎃점을 사용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공통 성분인 '등학교'를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었다.

오답 풀이 ① 영철이는 뒤에 쉼표가 있으므로 뒷말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등산객은 땀을 닦고 있고 영철이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② 의문의 정도가 약할 때는 물음표 대신 마침표를 쓸 수 있다. 의문의 정도가 약하지만 평서문은 아니다.
③ 소괄호는 생략할 수 있는 요소를 나타내므로 '종묘 제례악'은 '종묘악'이라고도 할 수 있다.
④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할 때는 큰따옴표를 쓴다. ㉣에서 작은따옴표는 '실천'을 강조하여 특별히 드러내려고 쓴 것이다.

2 ㉤에서 한 문장에 '운전'이 반복되기는 하였지만 단어로는 '운전자'와 '운전'이므로 같은 단어를 중복해서 사용한 것은 아니다. 보조사 '치고'는 명사 뒤에 붙어 그 말의 일반적인 속성과 어긋나는 뜻의 서술어와 자연스럽게 호응한다. 초보 운전자는 일반적으로 운전을 잘하지 못한다. 초보 운전자와 '서투르다'는 초보 운전자의 속성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초보 운전자에 '치고'가 결합하였을 때는 '초보 운전자치고'가 '서투르다'와 잘 호응하지 않는다.

3 한 문장에 주어와 서술어가 3개(은희가 노래하다./민서가 들었다./건우는 말했다)가 있는데, 호응하는 주어와 서술어가 떨어져 있어 잘 연결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먼저 '은희–노래하다', '민서–들었다', 건우–말했다'처럼 관련 있는 말을 하나로 묶은 뒤 시간 순서에 따라 재배열한다.

VI. 국어사

01 | 한글 창제와 문자 생활의 변화

1 우리말에 안성맞춤, 한글

개념 확인 문제 본문 353쪽

1 ③ 2 ③

1 일반적인 쓰임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일부 표기에서 현대 국어에서 쓰지 않는 'ㅛ, ㅇㅇ, ㆅ' 등의 표기 예가 나타난다.

오답 풀이 ① 'ㅎ'의 경우에는 고유어에서 사잇소리나 된소리 부호 등으로 쓰인 예가 있다.

② 'ㅸ'은 창제 당시 한글의 기본 28개 자모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모음 'ㆍ'의 경우 그 소리는 근대 국어 시기에, 표기는 현대 국어 시기에 사라졌다.

⑤ 창제 당시 28자에 포함되어 있던 'ㆆ'의 경우도 현재에 사용하지 않는다.

2 종성의 'ㆁ'은 현대 국어의 'ㅇ'과 그 기능이 같아서 중세 국어 말부터 'ㆁ'은 'ㅇ'과 혼용되어 쓰였고, 근대 국어 시기에는 'ㅇ'으로 통합되었다.

오답 풀이 ① 'ㅎ'과 각자 병서는 우리말 표기보다도 한자음 표기에 주로 쓰였다.

② 소리글자인 한글 창제 당시 28자에 'ㅿ'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현재와는 다른 자음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④ 순경음 'ㅸ'은 한글 창제 당시부터 그 음가가 사라지기 시작하여, 표기도 점차 사라지다가 근대 국어 시기에 표기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⑤ 고유어 표기인 '혀다'에 'ㆅ'이 쓰였다는 것은 'ㆅ' 소리가 의미 변별에 관여했다는 것이므로 하나의 음운이다.

개념 확인 문제 본문 360쪽

1 ㉠ – ④, ㉡ – ②, ㉢ – ③, ㉣ – ① 2 ③

1 ① 한글 창제 당시 표기에서 의미 단위에 따라 음절과 음절 사이에 작은 점이 문장 부호의 기능을 한 경우가 있는데 오른쪽에 치우쳐 있으면 '우권점', 가운데 있으면 '중권점'이라고 한다. 사진 자료에서 ㉣에 해당한다.

② 『용비어천가』와 『월인천강지곡』 두 문헌에서 8종성법에서 벗어나는 받침 표기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ㆁ' 이외의 받침은 모두 8종성법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진 자료에서 ㉡에 해당한다.

③ 입성은 방점의 수가 아니라 종성 글자로 확인한다. 8종성 중에서도 'ㄱ, ㄷ(ㅅ), ㅂ' 등은 받침으로 쓰일 경우 내파되어 소리가 빨리 끝나므로 입성에 해당한다. 사진 자료에서 ㉢에 해당한다.

④ 중세 국어의 경우 띄어쓰기는 없으나 왕이나 황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한 칸을 띄우거나 줄을 바꿔 서술하는 경우가 있다. 사진 자료에서 ㉠에 해당한다.

2 한글 외에도 제작자와 제작 시기가 어느 정도 밝혀진 문자는 더 있다. 예를 들어 몽골의 파스파 문자는 원나라 때 파스파가 제작한 문자이다.

2 한글 창제 이전의 문자 생활

개념 확인 문제 본문 366쪽

1 ④ 2 ⑤

1 차자 표기 중에서 '향찰'은 한글 창제 이전에 이미 사라졌으며, '이두'는 한글 창제 이후에도 계속 사용되었다.

오답 풀이 ① 이두는 주로 중간 관리인 '서리'가 사용했으며, 실무 관련 문서를 제작하는 데 쓰였다.

② 현재 한자 사용 방식은 모두 한자음을 이용하는 음차이며, 그 중에서도 뜻과 관련하여 적은 음독 표기가 대부분이다.
③ '구결'은 기본적으로 한문 해독을 위해 우리말 조사나 어미 등을 추가하여 표현하는 것이므로 '구결'만으로는 우리말을 온전히 표현할 수 없었다.
⑤ '향찰'은 실질적인 부분은 한자의 '훈'을 빌리고 조사, 어미 등의 문법적 요소는 한자의 '음'을 빌려 표기하였다.

2 '다(多)'의 경우 한자의 음을 이용하여 종결 어미 '-다'를 표현한 것은 맞지만 '많다'는 뜻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음독'이 아니라 '음가'의 방식으로 사용한 것이다.

실전 문제 본문 367쪽

1 ② 2 ⑤ 3 ④ 4 ⑤

1 ㉠에서 말하고 있는 합용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진 모음 자모에는 모음 자모의 기본자(ㆍ, ㅡ, ㅣ), 초출자(ㅗ, ㅏ, ㅜ, ㅓ), 재출자(ㅛ, ㅑ, ㅠ, ㅕ)는 포함될 수가 없다. 또한 ㉡에서 'ㅅ:ㅆ(합용), ㄷ:ㄹ(이체), ㅂ:ㅸ(연서)'은 가획의 원리에 의해 제자된 것이 아니며, ㉢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체자(ㅇ, ㄹ, ㅿ)를 의미하는 것이다.

2 'ㅐ'와 'ㅒ'는 현대 국어와 달리 한글이 창제된 중세 국어 시기에는 'ㅏ+ㅣ', 'ㅑ+ㅣ'의 이중 모음으로 발음되던 것으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28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ㅐ, ㅒ'는 현대 국어에서는 단모음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ㅑ, ㅕ, ㅛ, ㅠ'는 현재 모두 이중 모음을 표기하는 데 쓰인다.
③ 'ㅣ'는 현대 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모음 자모이다.
④ 'ㅚ, ㅟ'는 현대 국어에서 이중 모음을 표기할 수도 있다.

3 〈보기 1〉의 한자음 기록 방식은 모두 '동국정운식'을 따르고 있다.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적을 때는 한자음에 종성이 없을 때에도 '셩'과 같이 'ㅇ'으로 종성이 없음을 기록한다. 중세 국어는 성조 언어로서 그 성조를 방점으로 표시하였다. 음절을 적는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어서 성조를 표시했는데 점이 없으면 평성, 점이 하나인 경우에는 거성, 점이 두 개이면 상성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다만 방점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받침이 'ㄱ, ㄷ, ㅂ, ㅅ' 등이 쓰이면 받침소리를 짧게 발음하는 입성으로 발음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방점이 없는 것은 성조가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ㄴ, ㄹ, ㅁ, ㅇ' 등의 불청불탁이 받침에 쓰인 경우에는 받침의 발음이 급하게 끝나지 않으므로 입성이라고 할 수 없다.

4 '다(多)'는 한자음은 '다'이고 훈은 '많다'이므로 평서형 종결 어미를 표기하기 위해 '다(多)'를 썼다면 한자의 음을 이용하되 한자의 의미와는 관계없이 사용한 것이므로 '음가'에 해당한다.

02 | 우리말의 변천 과정

2 음운의 변천 과정

개념 확인 문제 본문 377쪽

1 ② 2 ④ 3 ⑤

1 중세 국어 시기에 현대 국어와 거의 유사한 된소리가 음운으로 존재했으며, 'ㆅ'의 존재로 보아 현재와 다른 된소리도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오답 풀이 ① 고대 국어 시기에도 일부 거센소리는 존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③ 음운으로서 'ㆅ'은 후에 근대 국어 시기에 들어서 'ㅋ' 소리로 변화하였다.
④ 근대 국어 시기에 7종성법으로 변화한 것은 'ㄷ'과 'ㅅ'의 종성 변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⑤ 'ㅈ, ㅊ, ㅉ' 등이 경구개음이 된 것은 근대 국어 시기에 일어난 변화이다.

2 'ㅐ'에 'ㅔ'는 중세 국어 당시에는 이중 모음이었으므로 혼란이 없었으나 근대 국어 시기에 두 모음이 단모음화되면서 발음의 혼란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오답 풀이 ① 'ㆍ'가 음운으로서 기능을 상실하면서 'ㅡ'와의 모음 조화에 따른 대립이 사라졌기 때문에 모음 조화가 근대 국어 시기에 본격적으로 파괴된 것으로 보인다.

② 현대 국어에서 'ㅚ'는 'ㅞ'와 같은 발음인 [we]로 발음하고 있으며 'ㅟ'는 [wi] 또는 [yi]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다.

③ 중세 국어 시기에는 'ㅐ'는 'ㅏ+ㅣ', 'ㅔ'는 'ㅓ+ㅣ'의 소리 구조를 가진 것으로 이중 모음이다.

⑤ 제주 방언의 경우 중세 국어에서 각각 '말[言]'과 'ᄆᆞᆯ[馬]'로 다르게 표기되던 단어들이 현재도 다른 소리로 발음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당시 'ㆍ'의 발음이 일부 제주 방언에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3 근대 국어 시기에 성조가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 우리말은 성조 언어라고는 할 수 없게 되었고, 상성의 성조가 장음으로 남게 되면서 소리 길이로 의미를 변별하는 기능을 갖게 되어 길이 언어의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

오답 풀이 ① 원순 모음화는 앞의 양순음 때문에 후행하는 모음이 원순 모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므로 순행 동화에 해당한다.

② 현대 국어의 구개음화는 모두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의 경계에서 일어나고 표기에는 반영하지 않지만, 근대 국어에서는 이러한 경계와 관계없이 'ㄷ, ㅌ, ㄸ'이 'ㅣ'와 만나기만 하면 일어나고 표기도 구개음화된 상태로 적었다.

③ 고대 국어 시기에는 된소리가 음운으로서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④ 'ㅸ'과 'ㅿ' 소리는 중세 국어 시기 이전에 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

3 문법의 변천 과정

개념 확인 문제 본문 387쪽

1 ② 2 ⑤

1 '-ㄴ, -ㄹ' 등의 관형사형 어미가 명사적으로 기능하는 것은 중세 국어에서 일부 그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은 매우 적으며, 중세 국어 시기에는 이미 관형사형 어미가 현대 국어와 거의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었다.

오답 풀이 ① 중세 국어는 현대 국어에 비하여 어간과 어간이 바로 결합하여 하나의 단어를 형성하는 비통사적 합성어가 많이 나타난다.

③ 근대 국어에서는 중세 국어에서 상대적으로 그 쓰임이 적었던 명사형 어미 '-기'의 사용이 늘고, '-옴/-움'의 사용이 줄어들었다.

④ 중세 국어 말기부터 일부 자료에 나타난 주격 조사 '가'가 근대 국어에서 본격적으로 쓰이게 되었다.

⑤ 중세 국어 의문문은 판정 의문문인가 설명 의문문인가에 따라 종결 어미에 차이가 있었다.

2 선어말 어미 '-오-'의 경우에는 인칭 활용이라고 하여 주어가 1인칭인 '나, 우리'로 쓰이거나 화자 자신을 나타내는 경우에 서술어의 어미에 포함된다.

오답 풀이 ① '내'는 그 자체가 대명사가 아니라 대명사 '나'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한 것이다.

② '이ᄅᆞᆯ'에서 모음 'ㅣ'는 중성 모음이어서 양성 모음이나 음성 모음을 가진 조사 둘 다 결합이 가능하여 모음 조화의 파괴로 보기 어렵다.

③ '이'는 지시 대명사로 '이것'의 의미이다.

④ '어엿비'는 '어엿브다'에 부사 파생 접사 '-이'가 결합하여 부사가 된 것이다.

4 어휘의 변천 과정

개념 확인 문제 본문 390쪽

1 ④ 2 ①

1 현재는 다양한 외래어가 우리말에 유입되어 쓰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점차 한자어와 고유어가 자리를 내주고 있는 상황이다.

오답 풀이 ① 한자의 유입과 함께 한자어도 유입되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한자어의 유입은 고대 국어 시기 이전부터라고 할 수 있다.

② 근대 국어 시기에 한자어가 더 많이 쓰이게 되어 그 지위가 더욱 강화되었으며, 일본어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적은 현대 국어 시기 초기의 일이라 할 수 있다.

③ 경덕왕의 한화 정책은 지명과 관직명 등을 한자식으로 바꾼 것이어서 한화 정책으로 볼 수 있으나 우리말 전반을 한자어로 바꾸고자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⑤ 몽골의 영향은 고려 말기, 즉 전기 중세 국어 시기에 유입되어 우리말에 현재도 일부 남아 있다.

2 '보라매'는 몽골어 '보로(boro)'에 우리 고유어 '매'가 결합한 단어이다. 이러한 몽골어는 고려 말에 원나라의 고려 지배와 관련이 있다.

오답 풀이 ④ 일제 침략기를 거치면서 일본의 우리말 말살 정책으로 인해 많은 일본어가 우리말 대신에 사용되다가 해방 이후 언어 순화 운동을 거치면서 많이 사라졌다. '벤또'는 현재 '도시락'이라는 고유어로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

⑤ 중세 국어의 '뫼'는 '산(山)'이라는 한자어로 바뀌었는데 아직도 일부 우리말에서는 그 흔적이 보인다. '멧돼지'는 '산돼지', '멧나물'은 '산나물'을 의미한다.

실전 문제

본문 391쪽

1 ① 2 ⑤ 3 ③ 4 ③ 5 ④ 6 ③

1 '접때'는 '저'와 'ㅃ'의 복합어로 'ㅃ'의 'ㅂ'이 탈락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저'의 받침 'ㅂ'이 되어 '접때'가 된 것이다. 'ㅃ'와 같이 첫음절에 두 개 이상의 자음이 연이어 발음되는 것을 '어두 자음군'이라 한다. 'ㅺ'가 '씨'로 변화한 것으로 보아 어두 자음군은 근대 국어 시기에 된소리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

오답 풀이 ③, ④ '찰떡'과 '무릅쓰다'는 어두 자음군의 흔적이 남은 현대 국어의 예로 볼 수 없다.

②, ③, ⑤ '각자 병서'는 같은 자음 자모를 반복하여 적는 표기 방식을 말하고, 합용 병서는 서로 다른 자모를 합쳐 적는 방식을 말한다.

2 근대 국어에 나타난 구개음화가 현대 국어의 구개음화와 똑같은 것은 아니다. 근대 국어의 구개음화는 형태소 경계와 관계없이 음운과 음운이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하지만, 현대 국어의 구개음화는 형태소 경계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이다. '잔디'에서는 구개음화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③ 구개음화는 'i'나 'j'로 인해 자음이 'i'와 유사한 자리에서 조음되는 경구개음으로 변하는 것이므로 일종의 역행 동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④ 'ㅈ, ㅊ, ㅉ'가 표기하는 소리는 후기 중세 국어에서는 치조 파찰음이었다면 근대 국어 시기부터는 경구개 파찰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사래(살+애)'와 '보ᄆᆡ(봄+ᄋᆡ)'에는 부사격 조사로 '애'와 'ᄋᆡ'가 각각 쓰였는데 '살'과 '봄'이 모두 양성 모음을 가진 명사이므로 '애'와 'ᄋᆡ'가 모음 조화의 종류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없다. 원래 'ᄋᆡ'는 양성 모음 뒤에 쓰이는 관형격 조사인데 특정한 체언 뒤에서 부사격 조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었다. 음성 모음 뒤에는 '에'와 '의'가 결합했다.

오답 풀이 ① 'ᄂᆞᆯ-+-(ᄋᆞ)샤 → ᄂᆞᄅᆞ샤'로 보아 'ㄹ'이 탈락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② '고성(古聖)이'의 현대어 풀이가 '옛날 성인과'인 점을 고려하면 조사 '이'가 비교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④ '稱訟(칭송)ᄒᆞᄉᆞᄫᆞ니'에 쓰인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ᄉᆞᆸ-'는 현대 국어에는 쓰이지 않는다.

⑤ '잣 안ㅅ 보ᄆᆡ'의 현대어 풀이가 '성 안의 봄에'임을 고려하면 '안ㅅ'의 'ㅅ'은 현대 국어의 관형격 조사 '의'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4 ㉡에서는 객체 높임의 경우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선어말 어미가 쓰인 것이 아니라 객체를 높일 때만 선어말 어미 '-ᄉᆞᆸ-'을 사용한 것이다. 높임법의 정도에 따라 어미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은 객체 높임

법이 아니라 상대 높임법이다.

오답 풀이 ① 2인칭 주어가 쓰인 'ᄒᆞ라체'의 의문형 어미는 의문문의 종류에 관계없이 ㉠과 같이 '-ㄴ다'가 쓰였다.

② ㉡ '보내시ᄂᆞ니잇고'에 쓰인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는 '-시-'로 현대 국어의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와 형태가 같다.

④ ㉢에서는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에 따라 각각 '가'와 '고'가 의문 보조사로서 체언에 바로 결합하여 의문문을 만들고 있다.

⑤ ㉡에서는 상대 높임법을 고려하여 'ᄒᆞ쇼셔체'에 해당하는 '-니잇가/-니잇고'가 각각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에 따라 쓰였다. ㉣에서는 'ᄒᆞ라체'에 해당하는 '-녀/-뇨'가 쓰였다.

5 ㉤ '보들 몯ᄒᆞ여'의 현대어 풀이가 '보지 못하여'임을 고려할 때 '-들'은 보조적 연결 어미이며 구개음화가 일어날 환경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보기 1〉에서 모음 조화가 혼란한 모습을 보인 시기는 근대 국어 시기라고 하였는데 'ᄃᆞᆯ' 대신에 '들'이 쓰인 것으로 보아 ㉤은 모음 조화가 혼란한 근대 국어 시기의 자료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은 18세기 자료인 『인어대방(隣語大方)』에서 인용한 것이며, 나머지는 모두 후기 중세 국어 자료인 『석보상절(釋譜詳節)』에서 인용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 '涅槃호려'는 '涅槃+ᄒᆞ-+-오-+-려'가 결합한 것으로 선어말 어미 '-오-'가 쓰였다.

② ㉡은 2인칭 대명사 '네'가 주어로 쓰였으며 'ᄒᆞᄂᆞᆫ다'에 의문형 어미 '-ㄴ다'가 쓰였다.

③ ㉢ '여름 여루미'에서 '여름'은 명사 파생 접사 '-(으)ㅁ'이 결합하여 '열매'라는 의미의 명사가 된 것이고, '여루미'는 '열다'에 명사형 어미 '-움'이 결합된 것이다.

⑤ '그딋 혼 조초ᄒᆞ야'의 현대어 풀이가 '당신이 한 것 좇아서'임을 고려하면 관형사형 어미 '-ㄴ'이 '-ㄴ 것'의 의미로 명사적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6 고려 말에 원나라로부터 몽골어가 유입되었는데 이는 원나라의 고려 지배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군사나 매에 관한 몽골어의 유입을 단순히 국경 관계로 인한 접촉이나 교류의 문제로 설명할 수 없다.